제대로 오로지 전통 수제 착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합니다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감동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 이자가 오르면 오른금리로 내입해드 생활금리로!
■ 고객님은 국제적금 생활저축금 노후생활적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형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7월 2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일부분만을 보는 사람들은
바른 이치에서 어긋난 것에 집
착하여 정론을 벌인다.
〈이환경〉

법회 안내

조계사 (02)732-2115
신도회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음회법회 매주 토 오전11시
반야회법회 매주 금 오후7시
원심회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대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3시

홍은사 (02)922-1990
초하법회 매주일~3일(음)
지장재일법회 매월15일~18일(음)
가족법회 매월 1·3주 토 오후7시

대구 은적사 (053)653-1572
신월기도 및 108참회정진법회
매월 1~3일(음) 오전9시30분
거사림회법회 매월 1·3주 수
오후7시30분
청년회법회 매주 월 오후7시
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대구 관음사 (053)421-3700
월일법회 매월 9일 오전10시
바른길회법회 매월 18일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1시

대구 구도회 (053)654-8533
수요경전법회 수 오후7시30분
토요정진법회 매주 토 오후8시
철야정진법회 매월 마지막 일
야화법회 매월 둘째 일
중·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대구 공덕원 (053)741-0077
정기법회 매주 금 오전11시
거사림법회 매월 첫째주 금,
셋째주 월 오후8시
청년회법회 매주 수 오후8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중앙박물관 경내 탑등 불교계로 돌아온다

불상등 500여점 승가대로 이전 추진

국립중앙박물관 경내의 탑, 불상, 부도, 비 등 성보문화재들이 불교계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스님)은 국립중앙박물관 외곽과 지하 수장고에 소장돼 있는 성보문화재의 위탁관리와 관련한 실무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중앙승가대와 문화체육부 종무실이 김포학사 신축과 국립중앙박물관 해체와 관련 성보를 위탁관리한다는 의견을 모은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승가대는 김포화사부지 5천여평 규모에 야외 박물관을 조성, 법천사터 지광국사 현묘탑, 불입상등 국립중앙박물관 주변의 불탑과 부도, 지하 소장품 50기 정도의 성보문화재를 옮긴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또 중앙승가대는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문화재목록과 요청서 및 야외박물관 조감도를 설계중에 있다.

조계종 총무원도 진작부터 거론돼 왔던 이들 문화재의 불교계 위탁관리를 이달말 구성될 성보문화재 보존위원단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과의 한 관계자는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과 공식적인 발송등 불교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른다면 불교계가 위탁관리 하는데 실무자들은 전반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교계 위탁관리의 현실화 작업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성보문화재 돌려받기'가 가시화 됨에따라 성보문화재를 보다 과학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등은 교계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한 교계의 참구일원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필선 기자)



"극락왕생 하소서" 19일 오후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삼풍 희생자 합동 위령재'에는 유가족 1백500여명,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탁해 진각종 통리원장 등 종단대표들과 조순 서울시장 서석재 총무처장관 황영수의원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불자들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빌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안녕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일 것을 다짐하면서 28일간의 참회기도 입재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15면). 〈사진=박재완 기자〉

성보전시관 건립 대책위 구성

19일 주지회의…목록작성·예산확보 결의

성보전시관 건립예산 국고보조기각과 관련(본지 37호 1면 참조) 대책마련을 위한 사찰 주지회의가 지난 19일 오전11시 총무원 청사 4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해인사 원정사 불국사 은해사 등 15개 사찰 주지스님들이 참가한 이날 성보전시관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구성돼, 위원 선임을 총무원에 위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성보전시관 건립은 불교계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민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시급한 일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 말사의 지정문화재를 본사로 이운, 성보목록을 자세히 만들어 총무원에 보고하는등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보수가 일부 부실공사와 과대지출등 문제점이 있다는 은해사 돈명스님 지적에 따라문화재 보수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본사 사령
남 수 미
조사자료부 기자
〈7월1일자〉

무더위 이기는 禪이룩 12면
박승현 기적의 생환 드라마 16면



◇주한 미얀마대사관 민민찌(Myint Myint Kyi) 주재관이 '우리는 불자가정' 스티커 붙이기 운동에 동참, 주한 미얀마 대사관도 '불자가정'의 일원이 됐다.

미얀마 대사관 동참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 보급이 주한 외국인 대사관으로 확산되면서 해외 불교국가들의 동참이 기대되고 있다.

스티커 붙이기 동참자 천매이상 △영등포구 통해사 △자현암(주지 혜향) △안양원(주지 안경우) △용현사(주지 두성스님) △경남 묘관음사 포교원 천매이하 △광명사(주지 석세일) △대한불교법사회 △여시아문 △홍선사(주지 양국) △노원구 사천왕사 △성원정사(법사 함영운) △미얀마대사관 △스리랑카 대사관 △알본대사관 △중국대사관 △태국대사관 △인도대사관 △손봉영 △김건영 △이용란 △고형호 △손두연 △김용석 △박필순 △김경옥 △이상경 △이상규 △이종복 △강산화 △한명희 △김정숙 △김한섭 △최병만 △김경순 〈무순〉

동참금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 금 주 현대불교신문
전 화 737-8881, 722-4162
팩 스 737-0698

현대불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대한불교진흥원

월주스님 방북 불투명

北 '15일까지 초청장 보내겠다' 약속어겨

월주스님의 방북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북측이 보내기로 했던 월주스님 방북초청장이 예정시한인 15일이 지난 현재(7월20일)까지 도착하지 않음에 따라 월주스님 방북은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시일내 초청장이 온다 하더라도 방북시기가 북한의 8·15대민족회의와 통일대축전과 겹쳐,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 종교교류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월주스님과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다소 늦더라도 순수교류차원의 초청장을 보내올 경우, 월주스님은 언제라도 방북길에 오를 것이라고 밝혀 종교지도자 최초방북의 한가닥 희망은 남아 있는 상태다.

총무원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좀더 여유를 두고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과 함께 일정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지속적 남북불교교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을 내비쳤다.

한편 이미 초청장을 받아놓고 있는 법타 시현 지선 진관등 4명 스님의 방북도 정부가 월주스님과 동행이 아닌 한 불허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 또한 성사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목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

지도자로 꼽혀온 김대중씨가 정계은퇴약속을 번복했다. 언론은 물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 화제에 끼어 한마디씩 던지는 걸 보면 지도자 노릇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정계복귀 명분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조건 없었던 은퇴선언과 비교해 구차스럽게 비친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자만과 독선적인 요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령 국가적인 '위기' 징후가 있다 하더라도 왜 하필 金 이사장이 삭언을 하면서까지 정계에 복귀해야 하는지 그 명분을 이해할 수 없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50~70%가 그의 복귀를 반대하고 있다. 50~70%대가 복귀를 간청하더라도 재삼 처신을 삼가는 것이 약속을 존중하는 지도자 자세일텐데… 먼저 정치의 믿음(信)부터 세우라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훌륭한 명분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지도자로서 일관된 소신과 정직의 가치를 결코 제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씨 재등장에 대한 일간지의 사설과 시론은 한결같이 약속과 믿음 그리고 정직을 강조하면서 '나'를 내세운다고 비판했다.

왜 그랬을까. 부처님의 가르침 '숫타니파타'에서 그답을 들어본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이다."

KIA 기아자동차
'94, '95 2년 연속 환경관리 모범업체

엄청난 프레임이 숨어있다!



■ 2중 구조의 특수 강철 프레임
스포티지의 프레임은 굳고 단단한 2중구조의 특수강철 프레임으로, 충돌 안전성 및 충격흡수성이 탁월하여 탑승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켜줍니다.

프레임은 안전의 기본,
어떤 승용차에도 이런 프레임은 없습니다.
프레임은 바로 차체의 골격! 충돌시 내부에서 차체를 버텨줌으로써 찌그러짐·비틀림을 최소화하여 탑승자를 1차적으로 보호해주므로 프레임이야말로 안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충돌 안전성·충격 흡수력이 탁월한 2중 구조의 특수 강철 프레임으로 특히 오프로드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높은 고갯길이나 험한 산길도 올 봄에는 스포티지로 달려보십시오. 이제껏 보던 것보다 훨씬 싱그럽고 생동감 넘치는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스포티지를 본격 RV(Recreational Vehicle)라 부르는가?
RV란? 승차근, 비지니스 레저 등 자동차에 대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다목적 자동차로, 우리나라에서는 스포티지가 최초의 RV 고유모델입니다. 세계 유명 모터쇼에서도 선진 메이커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RV모델을 선보이는 등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충돌안전성이 뛰어난 고장력강판 ■ 사륜구동 최초 리어 ABS 브레이크(ABS 패키지 옵션)
■ 2차 충격을 막아주는 T형 버팀식 ■ 고급 승용차용 더블 위시본식 독립 현가장치(전륜)
■ 운전자를 보호하는 충격흡수식 핸들 ■ 도어 임팩트 바 및 논재밍 안전도어

70%는 바다를 건너간다.
Sportage

기분 좋은 뉴스!
1200만원대 스포티지
• 2.0가솔린(SOHC) ₩12,000,000
• 2.0가솔린(DOHC) ₩12,600,000
• 2.2디젤 ₩12,370,000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사 설

종단협, 대외기구로 거듭나야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가 꽃을 피우기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종단협의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불교종단간의 유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불교계의 현안을 공동으로 협의 추진하므로써 불교중흥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이라 되어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홍포 및 사회교화사업, 교리연구 및 학술문화사업, 불교복지 및 구호사업 등등' 9종의 사업을 펼치는 것도 물론이다.

이상과 같이 거룩한 정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단협의 활동은 실망의 차원을 넘어 내세울만한 기여도가 없다. 특히 80년 이후 종단협의 행로는 특정인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는 세평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국민을 계도하고 사회를 정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기 전시용 행사나 구호성 행사에 치중하며 그 명맥을 유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산업사회의 도래는 불교계에도 능동적인 변화를 요구했으며, 자의든 타의든 불교계도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종단협은 변화의 중심 속에서 불법에 의한 불변의 如法한 잣대를 제시하고 그것을 수호하는 일에 매진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대표성만을 공허한 메아리처럼 외쳤을 뿐이다.

이처럼 제 정신을 못차리고 부처님의 그늘에서 호구지책이나 챙기던 종단협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가려서 여법한 실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고 한다.

종단협은 변화의 첫 단계로 외형적 성장 보다는 내실을 기하고자 하고 있다. 화합승단의 면모를 갖추어 명실상부한 제 종단의 대의기구가 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대표격인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의 부장들이 주무이사로서 사무를 관장케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재산관리법폐지 이후 죽끓듯이 일어난 분종·탈종·창종 등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회원가입조건을 강화시켰다. 더욱 고무적인 일은 행정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을 원만히 성취하기 위해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관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이비승 척결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발본해 버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종교법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종단협의 변화에 힘찬 격려를 보내고자 한다. '아픔없는 환골탈태는 없다'는 고언도 첨언하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한 애정의 표현이 아니다. 종단협이 한국불교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가능성을 감안하고 그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무엇보다 크기 때문이다.

또한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조급하게 서둘러 전시효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단 한걸음이라도 내일을 생각하며 행보하길 바란다. 정녕 이땅에 평화와 행복이라는 연꽃을 피워 제불조사와 일체중생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길 바라마지 않는다.

열 린 마 당

종단협 활성화

종단협은 주무이사 3인으로 사무총장 역할을 대행케 할 예정이다. 임기 및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앞서 주무이사 세 스님의 간단한 포부를 들어본다.

시 현 스님



사업분담 각종단 역할 강화를

종단간의 유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교계의 현안을 공동으로 협의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종단협이 지금까지 제 역할을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각 종단들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화해 분야별·직능별로 분담해 공영체제로 나가야 하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 한층 의미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려면 실무를 맡은 사람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불교가 대 사회적으로 제 기능을 잘 할수 있기 위해서는 종단간의 교감과 협조가 필요한데 기존의 1인 사무총장 체제와 달리 주무이사 3인이 함께 맡은 만큼 한층 일이 원활해 지리라 생각된다.

〈조계종 문화사회부장〉

자 월 스님



형평 운영…공신력있는 단체로

불교의 공동 관심사항을 범종단적으로 추진하고, 친목을 도모, 종단간의 이해와 화합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종단협이 운영돼야 한다.

큰 종단은 큰 종단대로 작은 종단은 작은 종단대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형평에 기초하면서, 군소종단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작은 일에도 배려해 주는 것이 실무자들이 해야할 일일 것이다.

현재 한국불교는 기준이나 질서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 이러한 기준이나 질서를 세워 잘못된 점을 규제하고 공신력있는 집단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도 종단협의 주요 역할이 될 것이다.

〈태고종 총무부장〉

도 원 스님



29개 종단 공동발전안 모색을

모든 종단들이 저마다의 위상을 정립하고 신심으로 불교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종단협에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실 큰 종단에 눌려 군소종단들은 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살피고 동시에 전시 행정이나 상 내기식 사업이 아닌, 29개 종단이 공동으로 요망하고 희구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정도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고 특정인을 위한 종단협이 아니라 정말로 종단들의 협의체, 대변자가 되도록 실무자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천태종 총무부장〉

시 론

나부터 참회해야 모두 산다



고 흥 문
〈前 국회부의장〉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삼풍참사로 졸지에 온 가족을 잃게 된 어느 대학교수가 오열을 삼키며 내뱉은 말이다. 그 교수는 30여년의 외국생활을 청산하고 바로 한달 전 조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를 꿈꾸며 영구 귀국한 분이다. 그런 그에게 조국은 처와 1남2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엄청난 비극으로 대답을 했다.

정말이지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단 말인가.

항간에선 살기 싫거든 '지하철을 타고 한강 다리를 건너 백화점으로 가라'는 말이 떠돈다. 꼬리를 무는 대형참사에 언론은 아예 이 나라를 '사고 공화국'으로 명명했다. 그 사고 공화국 정부에다 대고 시민들은 이렇게 말한다. '제발 명대로 살게 해달라'고.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3개월이 멀다않고 대형참사가 터지는 이런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것도 자연재해가 아닌 人災로서, 또 전쟁이나 테러가 아닌 사고로서 수백명씩 죽고 다치는 그런 나라는 단연코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를 되뇌어야 하는 딱한 처지로 굴러 떨어지고 만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내일 모레쯤이면 선진국 대열에 낄 것이라더니 어쩌다가 지구촌의 조롱꺼리가 된 것일까. 당국은 이 모든 게 설계 잘못 때문이라고 한다. 시공부실 때문이라고 한다. 감리 때문이라고 한다. 관리의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한다. 심지어 어떤 지체높은 분은 5·6공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 정부도 피해자라고 한다. 언론마저도 그 원인을 부실시공 뇌물 파렴치한 상혼에서 찾는다. 그렇다면 무너진 것들 말고 아직은 서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나라 전체를 재개발하지 않고서는 비슷한 사고를 면하기 어려운게 아닐까. 林立해 있는 저 아파트들, 대형 공연장들, 다리들, 지하철들 그 모두가 다 붕괴 멸분전은 아닐까.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옥죄어 온다.

"제발 命대로 살게 해달라"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선진국도 좋고 세계화도 좋고 부국들의 모임인 OECD에의 가입도 좋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사람 사는 나라, 품위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면 뭘 하나. 발 밑이 꺼질까 두렵고 날벼락이 칠까봐 머리 위가 불안한 삶을 이어가야 할 판에 세계에서 몇째가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뭐 그리 자랑스럽겠는가.

우선 살고 보아야 한다. 하루하루가 편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누구라도 예외없이 팔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改心해야 한다. 돌아서면 곧 잊고마는 그때뿐의 다짐으로는 안된다. 전국 거리거리 목마다 '나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것만으로는 안된다. 진실로 참회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금전만능이 빚어낸 果報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은 달라지기 위해서지 앙갚음의 대상을 찾자는 게 아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을 죽게 만든 나쁜 놈을 찾아 내 벌을 주는 일도 해야 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뼈를 깎는 참회를 해야 한다. 우리도 그 일에 조금은 동참했기 때문이다.

일련의 사고는 이 사회의 구조적 결함이 낳은 사생아이다. 우리의 가치관이 금전만능으로 전도된 결과로 빚어진, 피할 수 없는 果報이다. 나만은 그 일과 무관하노라 하겠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치관 전도에 일조를 한 이상 그 일은 나의 참회를 요구한다. 내가 참회해야 남도 참회하고 세상도 바뀐다.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내가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임승차의 심보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고 공화국에선 진정으로 참회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지도자라는 사람은 대형참사 때마다 '누구의 탓'으로 규정하기에 더 바쁘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시신을 옆에 두고도 패 가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니 국민인들 참회할 마음을 내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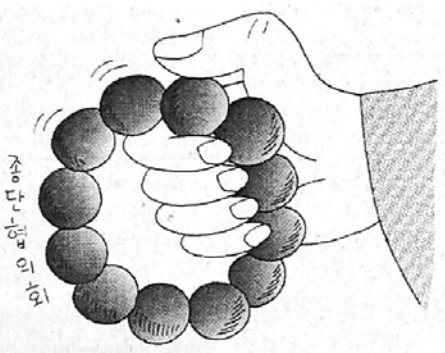
지금 우리 사회엔 자조적인 냉소주의가 넓게 번져가고 있다.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말, '이건 국가도 아니다'라는 말들이 지니고 있는 다분히 자학적인 분위기는 어쩌면 대형참사보다 더 심각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명대로 살기 위해서도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머리 꼭지부터 발 끝까지, 이 사회도 개인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나 자신이 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참회를 하자. 하루하루 참회하는 삶의 자세로 돌아가자. 현 시대는 적자생존의 시대가 아니라 협력생존의 시대임을 인식하고 나와 이웃, 사회, 국가, 자연이 모두 共業으로 얽힌 존재임을 깨닫자. 깊은 참회를 통해서….

마침 종교계가 참회운동에 나섰다고 한다. 이왕이면 TV·방송이 하루 세번씩 참회의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전파에 실어 내보냈으면 싶다.

나부터 달라져야 국가도 살고 남도 살고 나도 산다.

현 대 만 평 박 구 원



힘을 모아…

종단협 발자취 69년 출범…불교계 공동현안 대처

현재 29개 종단(조계 태고 천태 진각 관음 대한법화 원효 총화 일승 보문 한국법화 진언 법상 화엄 용화 미륵 천화 법륜 총지 원융 본원 삼론 조동 여래미타 열반 대승 일붕선교 염불) 이 가입돼 있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의 역사는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9년 3월 12개 종단 대표및 발기인 2백여명이 한국불교총연합회를 창립하는데 이것이 종단협의 전신이다. 한국불교총연합회는 1973년 한일불교 친선협회와 통합 한국불교회를 결성, 다시 대한불교총연합회로 되었다가 81년 4월2일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창립발기총회를 개최, 회장에 성수 조계종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지난 90년 법륜종 원융종 등 8개 신생종단을 받아들여 26개 종단으로 늘어나고 94년 2월엔 일붕선교종과 염불종이 가입하고 지난해 정토종이 제명돼 29개 종단이 되었다.

종단협의 활동은 크게 세가지로 나눠진다. 신년하례법회 서울시민을 위한 기원법회 부처님 오신날 봉축대법회 등 합동법요식과, 한일 불교교류대회 등 국제불교교류, 그리고 통일·환경사업 등 대 사회적 역할이다.

부처님 오신날 공휴일 법제정 추진 청원서 제출, 경승제도, 승려보험제도 실시, 88년 불재법 폐지 의견서제출 등 불교계 공동 현안에 대해 범종단적으로 대처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88년 9월13일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만불자가 동참한 한강 연등제를 봉행 전국민의 눈길을 끌었고, 지난 91년 10월29~11월4일 미국 LA에서 남북한 불교대표자와 해외불교지도자가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법회를 봉행, 남북교류의 가능성을 열었다.

지난해 조계종 개혁때 종단협의회도 같이 개혁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이에따라 지난 4월 임시총회에서 활동강화를 위한 정관개정·분과위원회 자문단 활성화 등을 결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오는 9월말 한일 불교대회, 한강연등제 등의 행사를 추진할 예정인 종단협은 종교법인법 제정 공청회 등을 올해 사업으로 잡고 있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유보시켰다.

1995년도

불전국역 연수과정 및 연구과정생 모집요강

제1기 연구과정

1. 모집인원: 20명
2. 모집대상: 비구·비구니 및 재가불자
3. 응시자격: 본 연구원 연수과정 수료자
   중강 이상 자격자
   일반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불전번역에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4. 전형방법: 필기시험(80%) 및 면접(20%)
5. 서류제출 및 전형료
   가. 본원소정양식 응시원부 1부
   나.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다. 각 사찰 증강이력 증명서
   라. 이력서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사진 5매(반명함판)
   사. 제출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 2,000원
   (2) 전형료 : 30,000원
6. 전형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기간: 95.7.18(화)~8.12(토)
   (2) 접수처: 불전국역연구원 사무실
   (중앙승가대학 자비관 1층, 개운사 內)
   TEL. 929-9991
   나. 시험 및 면접
   (1) 일시: 95. 8. 20(일)
   (2) 장소: 정진관 401호
   (3) 시간: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필기시험)
   오후 12시 30분 ~ 2시 30분 (면접)
   다. 합격자 발표: 95. 8. 23(개별통보)
   라. 등록
   (1) 일시: 95. 8. 23(수) ~ 8. 26(토)
   (2) 장소: 불전국역연구원 사무실
   (중앙승가대학 자비관 1층, 개운사 內)
   TEL. 929-9991
   마.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1) 일시: 95. 8. 28(월) 오후 5시
   (2) 장소: 대강당
7. 교육과정
   가. 교육기간: 2년
   나. 강의시간: 오후 7시 ~ 9시
   다. 강의과목:
   ※ 회엄학, 성유식론 중 1과목은 전공과목임
   ※ 목, 금요일 교과과정은 교양과목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학년	화엄학1 (혜남스님)		성유식론1 (송천우교수)	고승문집 (이종찬교수)	좌선실수 (혜남스님)
2학년	성유식론2 (송천우교수)		화엄학2 (혜남스님)		

귀의삼보하옵고,
본 불전국역연구원은
국역사 양성과 불전의 정리 및
연구·번역과 출간에 주력하여 불교중흥의
토대를 이룰 목적으로 93년 5월에 출범한 이후,
사부대중의 관심과 원력에 힘입어 오는 9월
처음으로 연수과정 수료자들을 배출합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원은 연수과정 수료자와
불전 번역 및 연구에 뜻을 두신 분들을 선발하여
심도있는 연구과정을 통해 전문 불전국역사를
배출할 목적으로 연구과정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연구과정의 준비단계로서
기본경론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계속하여 운영하오니, 불전국역불사에
헌신하고자 원력을 세우신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앙승가대학부설 불전국역연구원
(136-07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번지
TEL. (02) 929-9991 / FAX. (02) 953-2876

제4기 연수과정

1. 모집인원: 50명
2. 모집대상: 비구·비구니 및 재가불자
3. 응시자격: 강원졸업 이상 자격자
   정규대 이상 졸업자
   한역위주의 연구소 및 단체에서 과정을 수료한 자
   교단내 각불교대학을 수료한 자
   불전번역의 경험이 있는 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4. 전형방법: 필기시험(80%) 및 면접(20%)
5. 서류제출 및 전형료
   가. 본원소정양식 응시원부 1부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 스님은 강원졸업증명서 1부
   다. 이력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사진 5매(반명함판)
   바. 제출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 2,000원
   (2) 전형료 : 30,000원
6. 전형일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기간: 95.7.18(화)~8.12(토)
   (2) 접수처: 불전국역연구원 사무실
   (중앙승가대학 자비관 1층, 개운사 內)
   TEL. 929-9991
   나. 시험 및 면접
   (1) 일시: 95. 8. 13(일)
   (2) 장소: 정진관 401호
   (3) 시간: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필기시험)
   오후 12시 30분 ~ 2시 30분 (면접)
   다. 합격자 발표: 95. 8. 21(개별통보)
   라. 등록
   (1) 일시: 95. 8. 21(월) ~ 8. 26(토)
   (2) 장소: 불전국역연구원 사무실
   (중앙승가대학 자비관 1층, 개운사 內)
   TEL. 929-9991
   마.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1) 일시: 95. 8. 28(월) 오후 5시
   (2) 장소: 대강당
7. 교육과정
   가. 교육기간: 2년
   나. 강의시간: 오후 7시 ~ 9시
   다. 강의과목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학년	아함경 (은제스님)	중관론 (이태승교수)	기신론 (혜주스님)	고승문집 (이종찬교수)	좌선실수 (혜남스님)
2학년	외 전 (이종찬교수)	유 식 (송천우교수)	유마경 (종법스님)		

산업·축산 폐수로 전국의 강 '몸살'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⑲



폐수로 오염된 죽음의 강을 되살리는 것이 오늘의 과제다. 사진은 낙동강.

'테임즈강은 타산지석' 되살리는 길 찾아야

강물의 오염

부처님은 인생을 강물에 비유하셨다. "인간을 구성하는 존재요소(五蘊: 色受想行識)는 주위의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멀리 그리고 빨리 흐르는 계곡물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삶은 강물과 같은 것이다."

무명과 번뇌에 오염되어 시작된 인간의 삶은 죽음의 흐름에 귀착되듯이, 강물도 공해에 오염되면 죽음의 흐름에 귀착된다.

영국은 최초로 산업사회가 시작된 나라이니만큼 환경오염의 역사 또한 가장 오래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듯이 영국의 산업혁명은 런던을 흐르는 테임즈강의 기적이었다. 테임즈강 유역에는 1800년대 초부터 철강, 석탄, 방직공업 등이 번창하였다. 이러한 산업의 영향으로 테임즈강은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며 1838년에는 이미 영국인이 즐겨먹은 테임즈강의 연어가 사라졌고, 그후 100여년간의, 죽어가는 강을 살리려는 노력은 제국주의적 산업팽창정책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2차대전 이후 런던시민이 5백만에서 8백만으로 늘어나자 테임즈강은 더욱 오염되어 1957년 테임즈강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는 죽음의 강이 되었다. 강물에서 나는 악취로 시민들은 창문조차 열 수 없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전국 3천9백여개의 하천은 대부분 상류부터 오염되어 있고, 한강, 낙동강, 영산강은 말할 것도 없고 금강, 섬진강을 보태어, 휴전선의 임진강에 이르기까지 모두 오염되어 있다. 하천의 상류는 대부분 물고기의 양식장이거나 곳곳에 들어박힌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사육장에서 방출되는 항생제와 약품이 섞여있는 사료, 축산폐수 등으로 오염되기 시작했다. 시골 구석구석에서 농사지을 때 농약, 비료, 제초제를 사용하고 농공단지에서는 폐수를 마음대로 방출하고 있어 중류의 하천과 강물을 더럽히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를 지나는 하류에서는 생활하수도 오염되었다. 삼천리 방방곡곡이 하나같이 오염되어, 금수강산이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수도권 2천만 시민의 젖줄인 한강은 하루 5백만톤의 산업 및 축산폐수가 흘러들어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다. 그 상류인 남한강도 상류부터 탄광폐수와 생활하수로 오염되어, 악취나는 원주천으로 오염된 섬강과 합류하여 오래전에 2급수로 떨어진 팔당호에 들어선다. 북한강도 마찬가지로 그 강 중류의 의암호에는 악취나는 춘천 공지천에서 흘러드는 물로 오염이 심각해지고 그리고 상류의 소양호에는 가두리 양식장으로 인한 부영양화로 오염된지 오래다.

비단 한강뿐만 아니라 비단결처럼 맑다는 금강물도 2급수로 전락된지 오래되었고, 낙동강도 발원지부터 탄광폐수로 시작하여 구미전자공단을 거쳐나오면 각종 중금속과 유해물질로 오염되어 이미 제 빛깔을 잃어버리고, 대구에 이르러서는 이미 죽음의 강이 되어버린 금호강의 물과 합류하여 BOD 20ppm의 극도의 오염된 강물이 되어 흐른다. 이 정도는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로인해 남강, 밀양강, 양산천과 합류하는 하류로 갈수록 죽음의 강으로 변해가고 있다. 나주, 함평, 무안, 담양, 장성, 목포를 통과하는 영산강 수계도 수도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그밖에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임진강도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상류의 축산농가도 폐수와 농공단지에서 농약 제초제의 대량살포, 동두천의 염색업체의 독성폐수 등으로 물빛이 시커멓게 오염되어 악취나는 지천과 합류함으로써 죽어가는 강이 되고 있다.

1960년 영국정부는 테임즈강 살리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펴서 그후 15년간 무려 25억달러의 경비를 들여 마침내 1974년 테임즈강에 연어가 되돌아오게 하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도 죽어가는 하천과 강을 살리기 위해 테임즈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완전한 죽음의 강이 되기 전에 손을 써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비로 금수강산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불광유치원에 다니는 지훈이는 길을 가다가도 스님을 만나면 멈춰서서 합장을 하고 "스님 안녕하세요"라고 정겹게 인사를 한다.

엄마 박혜원성보살은 그런 지훈이가 처음에는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길에서 스님을 만나면 반드시 합장인사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착하게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도 흐뭇하기만 했다.

금주의 주제
유치원 세우기

실이다. 그만큼 유년기에 받는 교육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마음놓고 맡길 불교유치원 조차 쉽사리 찾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자리한 사찰숫자에 견주어 볼 때 전국 8천여개 유치원가운데 교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교유치원은 전체의 3%에도 못미치는 2백여개에 불과하다.

기와불사, 범종불사 등 사찰의 외형적 불사도 중요하지만 눈을 돌려 미래의 불교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기본도량인 불교유치원 마련 불사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어린 불자들이 자라 다시 어린이법회, 청소년법회, 청년법회를 거쳐 믿음직한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요한 기초 불사의 하나가 바로 불교유치원의 건립이라 할 수 있다.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불교유치원이 들어설 때, 그 부처님품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불교의 미래 또한 더욱 깊숙히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바른 불자 기르는 밑거름

불교 유치원 3%… 절마다 세워야

수유리에 사는 정지혜성보살은 딸 수연이를 상계동 세성유치원까지 보낸다. 동네유치원에 보냈더니 찬송가를 배워와 불러대는 딸을 보고 놀라, 다니던 유아원을 그만두게 하고 불교계 유치원을 찾아 세성유치원까지 오게 됐다는 정보살은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불교유치원에 보내야 겠다는 생각에 상계동 세성유치원을 선택했어요"라고 말했다.

인성의 70% 가량이 이미 유년기에 형성된다고 하는 전문가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유년시절의 경험이 전체 삶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만큼 유년기에 받는 교육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마음놓고 맡길 불교유치원 조차 쉽사리 찾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자리한 사찰숫자에 견주어 볼 때 전국 8천여개 유치원가운데 교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교유치원은 전체의 3%에도 못미치는 2백여개에 불과하다.

기와불사, 범종불사 등 사찰의 외형적 불사도 중요하지만 눈을 돌려 미래의 불교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기본도량인 불교유치원 마련 불사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어린 불자들이 자라 다시 어린이법회, 청소년법회, 청년법회를 거쳐 믿음직한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요한 기초 불사의 하나가 바로 불교유치원의 건립이라 할 수 있다.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불교유치원이 들어설 때, 그 부처님품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불교의 미래 또한 더욱 깊숙히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신행수첩



◇월정사 8각9층석탑 앞에 앉아있는 석조약왕보살상. 자비의 웃음을 담고있다.

새삶 배우는 3박4일간의 출가생활

오대산 월정사 … 불자·일반인도 참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신심을 고양하며 삶의 지표를 바르게 가지기 위한 '월정사 출가 3박4일'이 8월 5일~8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불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린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월정사는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14년(645)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한 유서깊은 명찰. 이 절을 연 자장은 선덕여왕의 친족인 무림공(武林公)의 제2자로 일찍이 불문에 귀의, 당에 들어가 구법수도(求法修道)하고 귀국할 때 부처님 사리와 장경의 일부를 가지고 돌아와 이 절과 함께 양산 통도사를 이룩하고 율종(律宗)을 개창한 거승이다.

자장은 선덕여왕 12년에 우선 오대산 비로봉 아래에 석가세존의 정골사리를 봉안하고 적멸보궁(寂滅寶宮)을 창건한 다음, 2년 뒤에 동대만월산 아래에 절을 이룩하고 절안에 8각9층사리탑(국보 제48호)을 건립하여 그안에 석존사리 37과를 봉안하므로써 이 절을 창건하게 됐다. 문화재로는 석조약왕보살상(石造藥王菩薩像:보물 제139호)과 '상원사 중창권선문 (보물 제140호)'가 더 있다. (0374)32-6664~5

경주는 노천박물관

신라문화원 역사탐방

천년고도 경주를 일컬어 답없는 노천박물관이라 한다.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마당을 비롯하여 각종 강좌와 유적답사, 연수회, 전시회, 사회복지사업 등을 실시해오고 있는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8월 12, 13일 1박2일로 '제 2회 신라문화 역사탐방'을 마련한다.

홍륜사, 굴불사터, 황룡사터 답사를 시작으로 불국사·석굴암참배에 이어 향토 사학가 윤경렬씨의 설명하에 경주남산 유적 슬라이드상영도 한다.

장엄한 토암산 일출로 시작되는 둘째날의 답사는 불곡 감실불상, 탑곡 마애불상군 등 경주남산의 불적을 일일히 둘러보게 된다.

경주남산의 푸른 골짜기와 감포 동해안의 맑은 바닷기가 주는 신선함속에서 휴가와 방학을 가족과 함께 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561)746-1950

시와 낭만을 산사에서

백양사 여름문학학교

여름을 흔히 낭만의 계절이라고 한다. 아마도 파란 바다를 베개삼아 자연을 벗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시 한수가 어우러진다면 금상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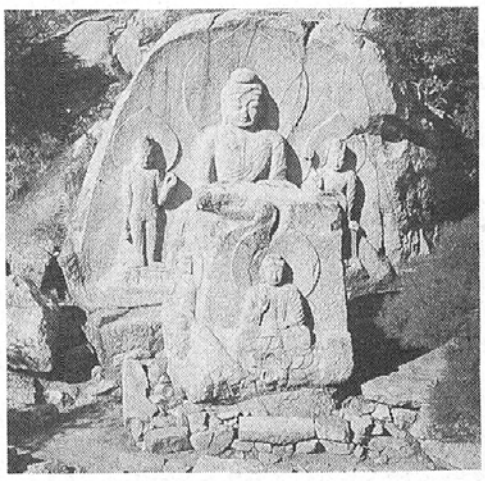
광주·전남민족문학인협의회는 8월5일부터 이틀간 전남 장성 백양사에서 '여름문학학교'를 개최한다.

운치 가득하고 영기마저 감도는 하얀 거암(巨岩) 학봉과 학봉 좌우에 맑고 찬 계곡의 수려함속에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과 김형수 시인의 주제강연이 열리고, 산사시낭송, 노래배우기 등의 즐거운 시간이 한여름 밤을 수놓게 될 것이다.

영취봉, 가인봉, 옥녀봉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연못에서 느껴지는 선계(仙界)속에 열리게 될 '문학토론' 시간도 산사와 문학의 절묘한 만남자리가 될 것이다.

문학을 아끼는 사람, 산사의 깊은 멋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권유한다.

(062)375-3585



◇신라때 천상에서 부처님이 하강해 머무는 영산으로 추앙되었던 경주 남산. 사진은 보물 200호인 경주 남산 칠불암마애석불.

국태민안 백고좌법회

조계사 내달 18일부터

1백여명의 법사를 초청, 강론을 듣는 법회장이 마련된다.

포교와 수행의 도량으로서 한국불교의 1번지 역할을 해온 조계사(주지 현근스님)는 8월 18일부터 1백일간에 걸쳐 백고좌법회를 실시한다.

백고좌법회는 신라 원광법사가 황룡사에서 나라의 재난을 막고 왜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왕반야경」을 강의한데서 시작됐다.

이번 법회는 한국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스님과 재가 1백여명을 법사로 초청하는만큼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자비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02)732-2115

감자 캐보고 곤충도 관찰

함평 어린이 여름캠프

요즘엔 방학이라도 잠꾸러기 어린이가 없다고 한다. 자연과 좋은 벗들과 함께 하는 행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함평 소재 21세기 사회교육개발원 수련원에서도 광주불교교육원 주최로 28일부터 2박3일간 어린이캠프가 마련됐다. 하지만 예전의 마냥 뛰놀고 노래하는 캠프가 아니다. 감자와 고구마를 캐고 곤충과 민물고기들을 관찰하며 깊은 산과 맑은 물속에서 자연을 호흡한다.

밭일도 배우고 달구지도 타보고 손톱에 봉숭아도 물들이며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한다. 특히 탈을 만들어 탈춤을 추며 별밤 풀밭에 누워 별을 헤는 캠프파이어도 준비돼 있다.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얻고 예쁜 선물도 마련돼 있는 이번 캠프에 어린이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참, 수련원엔 모든 시설이 현대적으로 갖춰져 있어 집떠난 어려움은 걱정 안해도 된다. (062)228-9098

정중선원

고승초청 예수재 49일 기도

끊임없는 원력과 기도정진력으로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나가시는 불자님 가정에 항상 불, 보살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불자님의 기도 정진원력은 가정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름길이며 자신의 참성품을 밝히고 무명 업식을 벗기며 윤회의 길을 벗어나는 선근종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은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윤회의 굴레에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명, 업식과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올바른 기도와 제불 보살님 그리고 참다운 선지식을 만나 올바른 길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저희 정중선원에서는 이 시대에 크나큰 선지식이신 일곱 분의 스승님을 초청 증명 법사로 모시고 영가 천도법회 및 생전예수재 법단을 마련하여 중생들이 무명 업식을 벗어나는 올바른 길을 인도받을 수 있는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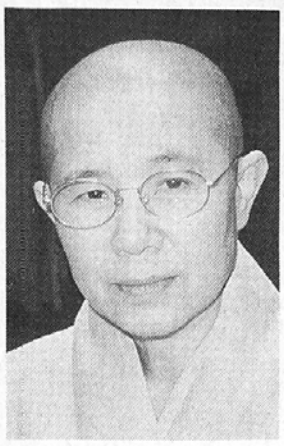
1. 예수재 : 입재 1995년 8월 14일 월요일
회향 1995년 10월 3일 월요일

1. 일곱 분 선지식 증명법사님 설법내용

■ 8월 14일 월요일 월 성 큰스님 (본원 선원장)
(예수재란 무엇인가. 예수재의 공덕)
■ 8월 21일 월요일 고 산 큰스님 (쌍계사 주지)
(기도의 원력 그리고 성취에 대하여)
■ 8월 28일 월요일 천 운 큰스님 (해남 대흥사 주지) / (기도와 보시정신)
■ 9월 4일 월요일 혜 정 큰스님 (전 총무원장)
(이웃을 부처님처럼, 전법의 기수가 되자)
■ 9월 11일 월요일 월 탄 큰스님 (전 법주사 주지)
(늘 깨어있는 불자가 되자)
■ 9월 18일 월요일 밀 운 큰스님 (전 봉은사 주지)
(청정도량을 만드는 보살)
■ 9월 25일 월요일 무진장 큰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함께 하는 기쁨, 나누는 기쁨)
■ 10월 3일 월요일 회 향 식
(불교전통 범패 전수자 스님들의 바라춤, 나비춤, 회심곡 등으로 여법히 회향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18-7 영재빌딩 5층
대한불교 조계종 정중선원
TEL 573-8506 / FAX 575-2709
※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바람

목동 청소년회관 4대 관장
명우 스님



"회관 살림 구석구석 돌봐야죠"

항상 귀열고 수행하는 자세로 일할터"

"목동청소년회관은 스님과 불자들이 한 마음으로 지역민을 위해 정성껏 일궈 놓은 포교의 텃밭이죠. 이 텃밭에서 더욱 알찬 포교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꾀해 효과적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일 목동청소년회관 19차 운영위원회에서 4대 관장으로 선출된 명우스님의 다짐이다.

지난 4년동안 목동청소년회관의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회관의 전반적인 살림을 도맡아 왔기 때문에 목동 청소년회관에 관한 거라면 무엇이든 세세히 알고 있는 스님은 도리어 "목동청소년회관을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한 선임 관장 스님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을까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만 수행하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책임을 다 할것 입니다."라고 말하며 밝게 웃는다.

스님은 오는 8월초 가질 취임을 앞두고 원활한 회관운영을 위한 구상에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전국비구니회 스님들과 불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귀를 열어둔 단체장'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기틀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지역문화발전과 청소년교화 및 복지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종합문화센터로 가꾸고자 합니다."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센터로 한층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명우스님은 "1백여 프로그램에 하루 1천8백명, 연간 60만의 지역민이 이용하는 회관을 구석구석 살펴, 세심한 손길을 늦추지 않겠다"며 한 차원 더 높은 회관운영을 거듭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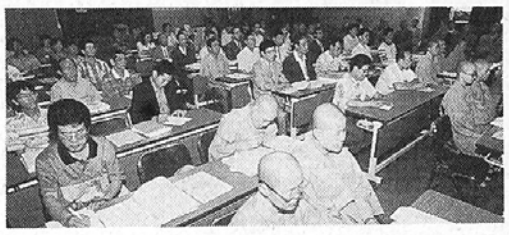
도필선 기자



빛나는 문화유산 대고려 국보전 개막

'대고려국보전—위대한 문화유산을 찾아서' 전시회가 지난 14일 서울 호암갤러리에서 개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국회의원 강부자씨,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사,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60여사찰 사무장 교육

조계종 본사 및 중요사찰 사무장 교육이 지난 20일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총무원 청사 1층 회관에서 개최됐다. 교구본사·특별분담금 사찰·직할 사찰등에서 온 60여 사무장들은 이날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의 각 부서별로 종무행정, 하반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내일을 여는 불자

대구 첫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교사
김은영 씨



"구김살없는 '새싹세상' 가꿀터"

신나는 율동·게임 개발…어린이 법회도 창단

"소문난 말썽꾸러기들도 불교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해집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 밝게 웃는 얼굴속에서 부처님의 미소도 느낄수 있습니다."

4년전부터 대구지역 어린이 불자들에게 불교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해 오고 있는 김은영씨(28).

어린아이의 미소를 닮아있는 김씨는 그동안 파계사, 심불정사, 관음사등 여러사찰의 어린이 법회를 열성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심불정사의 경우에는 직접 어린이법회를 창단하기도 했고, 파계사의 경우에는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서촌국민학교의 어린이 1백70여명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레크리에이션 법회를 이끌어왔다.

현재 지방의 불교레크레이션 보급실정은 매우 열악한 편으로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된 강사들은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 지난 1일 대구에서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김씨가 처음이다.

한 스님이 주관하는 어린이법회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위해' 불교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김씨는 악기를 들고 있는 사천왕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 불교와 레크레이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어린이 불교레크리에이션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하는 김씨는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찬불가, 신나는 율동, 유익한 게임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교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김은영씨의 불교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다. 그동안 대한불청대구지구 사무차장, 바른불교실천모임을 비롯 맹인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있는 연꽃봉사단의 일까지 맡아 다양한 영역에서 부처님의 정법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어린 불자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헌신적인 지도를 해오고 있는 불자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불교의 미래는 밝게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이윤호 기자〉



불교전통요리研 창립
주량월자 보살

"친정식구들이 독실한 불자여서 자연스럽게 사찰 전통요리를 배울 수 있었어요. 저 자신 또한 식당을 15여년 경영하다보니 이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5일 부산 천태종 삼광사 '불교전통 요리연구회' 창립법회를 가진 회장 주량월자 보살(52).

주회장은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소중하고 훌륭한 문화유산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사찰 전통요리는 음식문화의 꽃이라고 강조한다. 봄

"음식문화의 꽃 널리 알리고파"

철에는 각종의 산나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비롯해 요즘같은 여름철에는 전통수정과 등 계절의 별미도 있다고 소개한다. 이밖에도 다식, 유과, 부각, 전통 장조림 등 주회장이 선보일수 있는 사찰 전통요리 가지수는 3백여가지가 넘는다.

주보살은 "앞으로 불교전통요리연구회를 통해 우리 전통 사찰음식을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부산=박병근 기자〉



'가산학술상' 시상식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은 29일 오후3시 연구원 강당에서 '가산학술상' 시상 및 〈가산학보〉 제4호, 〈교감역주역대고승비문〉(고려편2) 출간기념회를 갖는다. (02)765-9602

'한라불교' 발행인 취임

수열스님(제주 선광사 주지)은 지난 22일 오후 7시 제주 오리엔탈호텔 연회장에서 각종 단대표 및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한라불교' 발행인으로 취임했다. 또한 이날 한라불교 창간 6주년 기념식도 봉행했다.

천불전 불사 준비차 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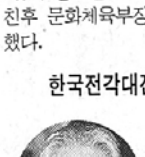


경암스님(워싱턴 보림사 주지)은 보림사 천불전 불사 준비 및 대원불교대학 미주 분교 1·2기생 교과서 수령등을 위해 귀국, 지난 21일 출국했다. 10월 기공예정인 보림사 천불전은 내년 3월 완공 예정이다.

조계종 호계원 사무처장에

종인스님(대덕사 주지)은 지난 18일부로 조계종 호계원 사무처장의 소임을 맡아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청소년지도 문체부장관상



법명스님(경주 향림사)는 7일부터 실시한 한국청소년개발원 2급 제3기 청소년 지도자과정을 마친후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전각대전 열어



김응현회장(한국전각학회, 서예가)은 올해를 한국전각중흥의 해로 정하고 지난 19~25일까지 서울 낙원동 운현궁 미술관에서 한국 전각대전을 개최했다.

미주불방 사상강연차 출국



권기종교수(동국대)는 미주불교방송이 주최하는 불교사상강연회에 참석키 위해 지난 24일 출국.

오는 28일 LA에서 교민불자들을 위해 '참다운 불자의 삶'에 대해 강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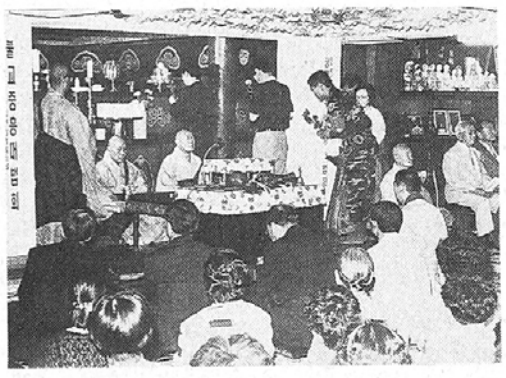
일제만행 소설 번역

김양식씨(시인, 한·인문화연구회장)는 최근 일제하 한국인에 대한 만행을 고발한 일본작가 이하라 히로미쓰의 장편소설〈아, 선감도〉를 번역, 출판했다.



후쿠오카 아시아문화상수상

백남준씨(62, 비디오아티스트)가 일본 후쿠오카市가 아시아지역의 문화진흥과 평화공헌을 위해 시상하고 있는 후쿠오카 아시아문화상의 올해 예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 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는 정기적으로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불교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움직이는 군법당' 법공양 앞장

올해 5만권 보급키로…부대위문·양로원 돕기도

"다음달 법회에서는 회원 1인당 2권의 불서를 보시해 주십시오."

군부대에 불서보내기운동을 펼치고 있는 충북예비역불자회원들은 포교의 황금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불서한권 읽을 수 없었던 열악했던 경험을 되살려 불서모으기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결실은 지난해만 군부대에 3만여권을 보시한데 이어 올해는 5만권을 보낸다는 계획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군부대를 찾아가는 움직이는 사찰'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충북여비역불자연합회(회장 정수기 세미관광 이사)는 93년 6월 21일 군승단과 군불교 포교를 지원하고 지역불교사업에 동참하고자 창립된 직업군인 출신 불자들의 모임이다.

짧게는 10년~20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그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군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충북예비역불자회는 군부대 훼불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93년 7월 24일 국방부장관 면담이후 창립됐다.

'군출신이기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군기가 살아나 어김없이 실현된다'는 전체회원 2백여명에 정회원 1백 3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자부심강한 신행단체.

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 청주지역 사찰을 돌며 순회법회를 갖는 외에도 신행을 돈독히 하며 육군, 공군부대위문 사관학교 법회지원 군법당 증개축 각 신행단체 지원과 양로원을 방문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재가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위한 법요집 '만남(417쪽)'을 발간하여 군부대에 법보시했고 10월에 재판 발행할 예정이다.

올 10월쯤 포교당을 자체적으로 개설할 계획인 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는 회원들의 보살님들을 중심으로 '관음회(회장 강자비행)'가 조직되어 폭넓게 활동하는 것도 이채롭다.

관음회는 성마야합창단을 중심으로 간병,음성공양등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기수 회장은 "앞으로 전국적인 예비역 불자연합회로 성장시키겠다"며 "충북지역의 명실상부한 신행을 이끄는 단체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불서보내기 동참은 청주 276-6812

청주=김원우 기자

탐 방
충북예비역 불자연

게시판

▲교사 특별연수=한국불교발전연구원(원장 김용정)은 오는 7월20일~26일까지 여름방학교사연수회 개최, 초중고교사를 대상으로 반야심경강의. (02)736-6202

▲불전국역연구원 연수생 모집=불전국역연구원(원장 혜남스님)은 제1기 연구과정과 제4기 연수과정 연수생을 오는 8월12일까지 접수한다. (02)929-9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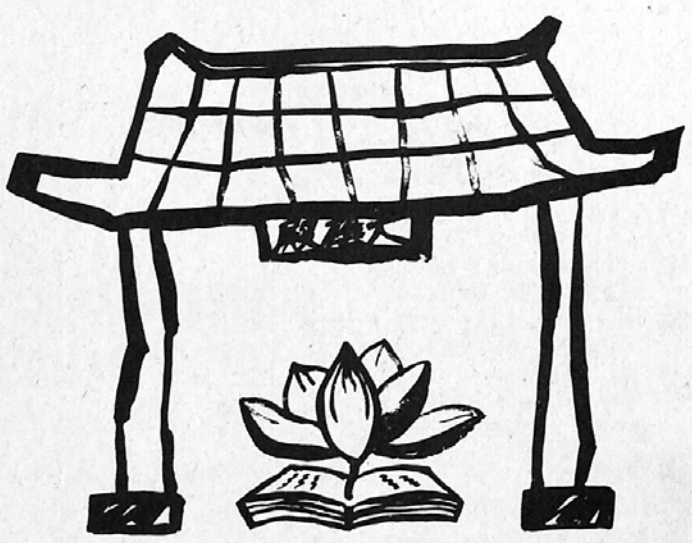
▲종이접기 교실=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스님)은 오는 8월1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유아 및 국교생을 대상으로 종이접기교실을 실시한다. (02)421-6077

▲'95 후기 신입생모집=조계사 불교대학은 2년과정의 불교학과 95후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02)720-6742

▲야간불교대학=봉은사(주지 무상스님)는 8월20일부터 5개월 과정, 제6기 야간불교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매주 수·목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2시간동안 봉은사 가사당에서 강의한다. (02)516-5652

생활 속의 불교 ㉞

부처님과 내가 강력접착제로 붙었으니



절을 찾는 이유는 뭔가?

보살님! 처사님! 하는 그 「님」자 소리 듣고 싶어서인가? 아니다.

법문 가운데 좋은 말이 많으니까 자주 들어 유식해지려고? 아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들과 사귀고 그래서 남의 덕도 좀 보고 싶어서인가? 아니다.

절에 가면 높이 앉은 불상이 나를 내려다보고 불쌍히 여겨 언젠가는 구원해줄지도 모르니까? 아니다.

부처님·보살님께 시주하고 열심히 빌면 복도 내려주고 좋은 일도 곧잘 생기게 해주니까? 아니다.

좋은 말씀 자주 듣다보면 제 스스로 조금은 착해지는 것 같으니 좀 선하게 살아보려고? 그럴 수도 있다.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큰스님의 지도를 받다보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열심히 수행해 나가다보면 어느 때인가는 나도 해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법문 듣고 수행지도도 받기 위해서 나간다. 그렇다. 절을 찾는 까닭은 믿음에 있다.

믿음이란 절을 믿고 탑을 믿고 불상을 믿고 경전을 믿고 스님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도 나를 믿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 할 때의 그 믿음은 '부처님의 믿음을 본받겠다.'는 의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랜 수행 끝에 '진리가 그러하구나.' 하고 깨달았고 그렇게 깨달음으로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여법하게 보여주고 설해주신 그 믿음, 진리에의 믿음 그것을 그대로 본뜨겠다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따라서 불자가 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품겠다는 것이요, 부처님과 같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또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내 속의 불성을 믿겠노라는 것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겠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끝내는 해탈하겠다는 것이다.

큰스님을 믿는 것은 육신으로서의 큰스님을 믿는 게 아니요, 큰스님의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다. 큰스님의 믿음을 따라 배우겠다는 것이요, 큰스님의 깨우친 바 그것을 믿겠다는 것이다. 큰스님에 대해 존경심을 품게 되는 것은 큰스님의 수행과 깨우침이 나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불자로서 진짜 믿음을 갖는다면 큰스님과 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염주처럼 꿰어지게 되고 부처님과 내가 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다.

고로 참다운 불자라면 부처님과, 내가 염주알처럼 꿰어져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한다.

겁내지 말고, 무엇을 바라지도 말고, 잘 되든 잘못되든, 죽든지 살든지 부처님과 내가 강력접착제로 딱 달라붙어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빌고 조아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게 진짜 믿음이다.

협찬 : 합동약국
합동약국에는 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마음, 아픔을 나누는 마음
대구 수성구 중동
합 동 약 국
약사 / 김우용 · 박경남
대구시 수성구 중동 590-1 / 전화 (053) 763-2705

물고기 '마음읽기' 연구의 시작

산문밖의 수禪單

민물고기 연구가 최기철 박사



탐구아닌 정감어린 대화…질서·정직 등 배워

'물고기는 제물에서 놀아야' 방생 다시 생각을

장마비가 촉촉히 내리는 날, 넘실거리는 황토색 빛깔의 한강물을 보면서 '이녀석들도 더울텐데 비가 와서 시원하겠구먼' 하고 너털웃음을 짓는 사람이 있다.

최기철 박사.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금새 알 수 있는 한국에서는 첫손가락에 꼽히는 민물고기박사.

8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정정한 풍모에 자상한 미소, 물고기를 어린 아이처럼 대하는 것이 꼭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친근함을 느끼게 한다.

'구도의 길' 닮은 40년 외길

"난 그 녀석들과 항상 얘기를 합니다. 녀석들이 뭐가 불편한지, 뭐가 필요한지 항상 내게 얘길 하니 이 할애비가 안들어줄 수 있나요."

자신의 물고기에 대한 연구는 탐구가 아닌 대화라고 말하는 최박사는 물고기의 '마음읽기'가 연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거대한 산맥에서도 동서지역에 사는 생물군생은 각기 달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특히 물고기는 더 많이 다르겠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40년전 서울대 교수로 재직시 강릉을 가는 도중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 본 태백산맥이 시야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떠오른 이 한 생각이 최박사를 물고기박사로 이끈 동기였다. 그러나 물고기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공부였지만 거기엔 작은 생명 하나에도 정성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랑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민물고기가 몇 종류나 되는지, 그 녀석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시는가요?"

대답할 수 없었다. 고작 이름을 대봐야 붕어, 송사리, 미꾸라지, 잉어, 피라미 생태계에 대한 상식수준 정도.

"버들붕어녀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변색을 잘하고 거푸집도 지을줄 알지요. 참붕어녀석은 아주 진한 사랑을 하는 놈이죠. 또 송사리녀석은 좁은 공간에서는 먹을 것으로 텃세가 심한 녀석이구요. 우리 사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집을 짓고 사랑을 하고 협동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 모든 물고기들의 행동이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질서를 존중하고 정해진 자기 몫에 충실한 정직한 녀석들이죠." 사람들의 탐욕과 무질서를 나무라고 있었다.

"현재 휴전선 이남에만도 약 1백45종의 민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오대산 월정사 금강못에서 뛰놀던 열목어녀석을 이젠 꿈에서 밖에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으니…."

한 분야의 학자가 아닌 물고기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배여 나왔다. 40여년을 한결같이 전국 1천5백여개면을 찾아 다니며 1백45종의 민물고기가 이 땅에 살고 있음을 손과 발로 알아냈던 그였기에 이런 안타까움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슴속 상처로 남아 있으리라.

신심깊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려서부터 불교를 좋아했다는 최박사는 불법속에 세상 모든 진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건 자신의 탐구작업과 불법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탐구는 끈질긴 인내를 요구하는 작업이고 불법도 끝없는 구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길 모두 깨닫는 그 순간까지 삶을 살듯 가야 하는 길이지요."

최박사는 굳이 자신의 불심을 드러내 보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마음과 삶속에는 이미 불법의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이내 말을 이어 요즘 불자들 사이에서 빈번히 행해지는 방생에 대해 잘못된 점을 꼬집기 시작했다.

"방생의 의미가 뭡니까.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릇된 관행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어요. 사람도 환경이 바뀌면 고통받듯 물고기에게도 알맞는 환경이 있는데 말이예요."

강마다 수질급수나 환경이 다르며, 심지어는 상류와 하류의 차이에도 민감해 서식지를 옮겨 놓으면 물고기는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생이라는 미명하에 제물에서 잘 노는 물고기를 잡아다 엉뚱한 곳에 놓으니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역정에 가까웠다. 그러나 애정이었다. 불교에 대한 애정이었고 물고기에 대한 애정이었다.

천지만물 내몸과 한뿌리

지난 76년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한 후에도 한결같이 물고기에 대한 애정을 지녀온 최박사는 요즘도 사당동 한켠에 마련한 (재)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에서 환경보전과 민물고기연구에 여념이 없다. 게다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 또한 남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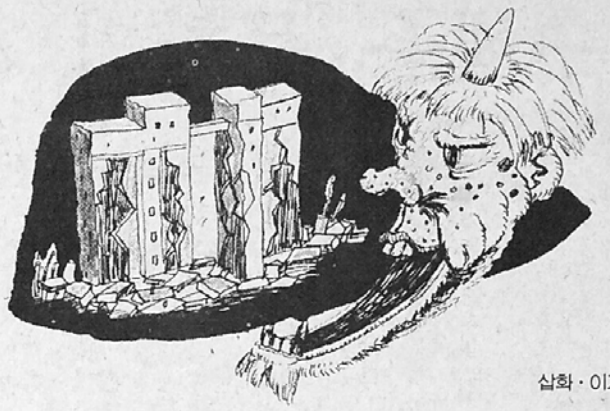
"대한민국 어느 강, 시냇가에서든지 우리 아이들이 맘놓고 멱을 감으며 물고기와 함께 뛰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 결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없다는 지론을 가진 최박사는 창의성, 뚝심, 성실성이 세가지야말로 기성세대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우리의 재산이라고 말한다. 결국 최박사의 물고기 사랑속엔 나라사랑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깃들어 있었다.

명예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물과 물고기 걱정뿐이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최박사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슬퍼했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다했다고 하시며 돌아가셨어요"라고 말했다. 그뿐이었다. 더이상 사족이 필요없는 대답이었다.

천지가 내몸과 한뿌리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몸으로 실천하며 여든 여섯해를 물고기 연구에 바친 최기철 박사. 남은 여생을 자신의 나이만큼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발원. 그는 이미 물고기들의 부처님이 되어 있었다.

한명우 기자



삽화 · 이기선

삼풍 생환자 '무유공포' 보여줘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㊱

공포(恐怖)

여유있는 말·행동 그대로 교훈

죽음은 공포인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시 오지 못할 저 세계로 가고 마니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죽음이란 최악의 시간이다. 그 최악의 고비를 넘기려고, 아니 그 고비가 자기에게 오지 않게하기 위하여 단말마의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삼풍백화점 사고는 생각만 하여도 끔찍한 일이다. 천재가 아닌 인재의 사고,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공사의 부실, 용도변경, 무조건 영업만 하면 된다는 인간의 욕망이, 많은 인명을 저승으로 보낸 것이다.

사람은 살면서 거주공간, 상업공간, 위락공간 모든 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공간건축은 자연과 상통하게 건축되어져야 한다. 자연의 생명이 자유이듯 생활공간도 생명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건축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건축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인간은 자연의 힘을 의식하여야 한다. 몇천년 전에 세워놓은 고인돌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는가. 그들 고대인들은 견고한 대지위에 육중한 돌을 세웠다. 절대로 무너지거나 파괴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온갖 정성을 쏟아 넣은 것이다.

혼이 담겨있는 집짓자

요즘 공사현장에는 이런 벽보가 붙어 있다. "혼이 담겨있는 집을 짓는다"고. 사실 혼이 담겨 있어야 하고 정성과 성실, 건축에 합당한 질료를 선택하여 모두가 화합중연이 되게 하여야 한다. 바다모래, 썩은 돌, 배분치가 부족한 시멘트, 기준치 미달의 철근을 갖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불실을 전제로 한 건물이 아닌가. 왜 오늘날의 인간은 함량미달, 기준미달, 용적미달, 과적의 과분수가 되는 죽음에 이르는 건축을 높게 세우고 있는가. 욕망, 과욕, 자만, 독선이 뒤질새라 날뛰는 세상이다.

최명석군, 유지환·박승현양이 얼마나 숭엄한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고 버티어 온 인간애의 승리일 것이다.

죽음은 어둠이다. 그런데 최명석군은 230시간 동안 암흑속에 있었고, 유지환양은 285시간이나 칠흑속에 갇혀 있었다. 죽음의 공간에 갇혀 있은 것이다. 한치의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사마(死魔)의 공간에서 소변, 빗물, 종이상자를 씹으면서 혼신의 힘을 쏟아내면서 생명의 빛살에 희망을 걸고 용케도 버티고 은 것이다. 황야나 산속에서 조난을 당한 것보다 몇천배의 악조건이 붕괴된 철골, 슬라브, 벽돌, 시멘트 더미에 짓눌려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암담함이 자신앞에 직전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생존자의 말들은 아름답고 싱그럽다.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저 잠이 오면 자고, 깨면 또 수분을 입으로 빨아들였다고 하니 얼마나 소중한 생명존귀의 현장인가.

암흑속에 갇혀 있으면 절망과 포기가 업습하게 된다. 죽음으로 다가가는 시간에 자신이 그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감지하였다면 정말 무서운 경련이 있었을 것이다.

확신 가지면 죽음 이겨

그런데 최군은 무심하게 잠을 청하고 장난감 기차를, 또한 최양은 플라스틱 연마기를 만지작거렸다는 그 폭넓은 여유는 생명을 살아오게 하는 기연이 되었을 것이다. 수도자라도 가질 수 없는 파적(破寂)의 한가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유양의 냉커피가 마시고 싶다는 일성은 거룩한 생명의 노래이다. 살고 싶다, 죽어간다 이러한 이분법의 갈림이 있었을 것인데 한 모금 냉커피를 갈구하였다는 것은 생시의 본능일 것이다.

장하고 거룩하다. 그대들은 복을 받은 환생인이다. 앞으로 그대들의 재생의 목소리가 삶의 기도문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죽음은 공포이다. 그러나 반야심경의 일절을 음미하여 보아야 한다. 무유공포(無有恐怖)이다. 두려움에 직면하여 두려움에 속아사는 사람은 다시 삶을 꾸려갈 수 없다. 공포가 앞에 닥쳐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허망이라고 생각하고 공포가 없음에 확신을 가지면 죽음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죽음은 무서움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최명석군은 달인(達人)의 경지에 있었던 삼매자일 것이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 존귀하게 보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이여, 우리 주변에 공포가 어둠으로 무명으로 암흑으로 짓눌리고 있다 하더라도 대광명의 생명이 새로운 숨결을 주는 것이라고 각증하여야 한다.



불교 성지 순례

실크로드 대장정 2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출 발 : 8월 28일
· 동참금 : 295만원
· 일 정 : 서울-북경-서안-난주-가욕관-돈황-투르판-우룸치-카수가르-쿤자랍고개-훈자-길기트-스왓-페샤와르-탁실라-이슬라마바드-라호르-방콕-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출 발 : 8월 25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 · 네팔 9일
· 출 발 : 8월 27일
· 동참금 : 210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스리랑카 캔디 불치제 6일
-스리랑카 최대의 불교 축제 캔디 페라헤라·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출 발 : 8월 4일
· 동참금 : 118만원
· 일 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시기리야-풀론나루와-덤블라-캔디(불치사)-콜롬보-서울

중국불교유적지 13일
· 출 발 : 8월 29일, 9월 19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 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출 발 : 8월 19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 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 출 발 : 8월 27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 출 발 : 8월 20일, 9월 20일
· 동참금 : 65만원

■ 여행조건 ●호텔 : 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 :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수행은 '무한의 자아' 찾는 과정

박석교수, 세계 각국의 종교 수행법 비교 분석

불교의 전통 수행법과 요가와 탄트라, 유교와 도교의 수행법, 유대인의 하시디즘, 가톨릭의 묵상 및 관상, 이슬람의 수피즘 등 세계 각 종교의 수행법을 비교분석하고 장단점을 검토해 수행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模範)을 제시하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불교사회연구소 상임이사 박석교수(상명여대 중문과)는 "깨달음과 그것을 얻기 위한 수행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상충되기도 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도 하고 서로 대립하게도 만든다"며 세계각국의 종교들이 제시하는 수행법을 비교분석, 9월쯤에 책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수행자나 나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지나친 주관성 속에서 정상적인 삶과는 너무 괴리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신과 남의 건전한 삶을 파괴하기도 한다는 것이 그의 우려였다.

"보편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면서, 동서고금의 다양한 수행체계와 깨달음의 세계를 분석, 가능한 보편적인 원리와 체계를 추출하고자 노력했다"는 그는 이같은 작업이 "수행이나 깨달음이 더 소중한 자신의 삶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시공(時空)의 제약을 넘어 무한성과 전체성을 갖는 '깨달음의 세계'도 언어나 형식으로 표현될 때에는 자연지리적·역사적 환경의 제약을 받지않을 수 없기에 "깨달음은 하나이지만 그곳에 이르는 방법은 천차만별"이란 공식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교수는 수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 "진정한 깨달음은 어떠한 것에 대한 앎이나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깨달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다. 본래 자성(自性)은 없지만 분명히 실재하는(眞空妙有) 유한한 나를 형성하는 인연의 끈들을 점점 풀어 무한성으로 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박석교수

'세상 사랑하자' 등 보편적 원리 추출

방법다양 혼란·대립·건전한 삶 파괴

라고 말하는 그는 세부적인 수행법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놓기 △욕망을 충족시키며 놓기 △고통을 직시하며 놓기 △관념을 정리하고 놓기 등과, 보다 구체적인 행법으로 △육체와 마음의 이완 △고쳐나가기(자신의 단점, 대인간의 갈등, 현실사회의 왜곡) △넓혀나가기(끝없이 배우기, 남을 인정하기) 등을 제시한다.

김재경 기자

잡초도 불성이 있는데 왜 뽑는지

문 집에서 화단을 가꾸다가 잡초가 있길래 뽑아버렸습니다. 그때 불현듯 화초나 잡초가 다같이 불성을 지닌 것인데 어느 것은 뽑고 어느 것은 기르느냐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돌이 아니라고 하는데 꽃은 가꾸고 잡초는 뽑아야 하는지요?

〈최화순·강원 속초시 금호동〉

답 가령 내가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타는 곳은 시발점일테고 내리는 곳은 종착점일테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타는 곳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내리는 곳에서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내리는데 어떤 것은 된다, 어떤 것은 안된다 하겠습니까? 타는 것도 내리는 것도 다 법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구별없이 그냥 타고 내렸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듯이 기르는 것도 법, 뽑는 것도 법입니다. 말하자면 뽑는다 기른다는 것이 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뽑아 버린게 그냥 버린게 아니라 내렸다가 다시 타듯이 다시 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심으로 잡초를 뽑아버렸을 땐 벌써 내 마음과 더불어 아름다움으로 하나 된 것이니 그 잡초는 꽃으로 화해서 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순간에 볼 때는 그게 잡초고 꽃이고 하지만 잡초도 잡초대로 그냥 있지않고 돌고 도는 것입니다. 녹슬은 쇠가 용광로에 들어 갔다가 재생되어 나오듯이 인간도 고정된 모습대로 있지않고 변화를 거듭합니다. 세상만물이 다 그러합니다.

봄비가 대지를 적시니 온갖 수목이 다 빗물을 먹고 삽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보시가 쓰레기값'이란 생각은

문 얼마전 하도 속상하는 일이 있어서 부처님 전에 시주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보시를 하고 돌아서는데 이번엔 '아하 이게 쓰레기 값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령된 생각은 아닌지요? 〈김이순·경북 경주시〉

답 가게에 가보면 그득히 쌓인 물건마다 제 값이 정해져 있지요. 그중 하나를 내가 제 값을 쳐주고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게 주인이 내게 '물건을 주었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가게 주인에게 '돈을 주었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 값주고 제 물건 샀으니 양쪽이 다 준 사이, 받은 사이가 없습니다. 내 집 쓰레기 치워가는데 청소비 냈으니 치워주었다는 사이도 없고 돈 냈다는 사이도 없겠지요?

우리가 이 도리를 터득하면 '내가 했다'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무엇을 주었다고 할 때에도 혼자 주는게 아닙니다. 내 육신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는데 '나 혼자'라 하겠습니까?

본래 자기가 했다 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내가 하는게 없으니 아무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다는 순수한 마음이 좋은 것입니다.

절에 시주를 할 때도 돈이 많은 사람이야 괜찮겠지만 '시주라면 적어도 얼마 정도는 해야 하는데'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생각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돈이 있고 없고는 자기 주처에서 잘 알고 있으니 주처에 다 맡기세요. 얼마를 시주해야 한다는 생각도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고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걸리지 마세요. 그저 '내가 한다'는 생각없이, 이것 또한 마음 공부의 재료이겠구나 하면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통장을 여러개나 갖고 있으면서도 남편이 중병을 앓는데도 시주하기를 아까워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공부를 가르칠 요량으로 호통을 쳐준 일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야 어느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까?

시주한다고 미리 정해 놓지도 말고 얼마했다고 내세우지도 말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또 적게했다고 걱정하지도 말고 많이 했다고 아까워 하지도 마세요. 제값 주고 물건 산 경우와 같이 준 사이도 없어야 참된 시주입니다.

마음공부에도 진도가 있습니까

문 불법공부를 하는 도반 중에는 이 공부를 시작한 후에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또 뭔가를 미리 예감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공부에도 진도라는 게 있는지요? 있다면 자신이 그것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방경수·서울 서초구 우면동〉

답 이 공부에 진도가 없다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났다는 말도 없겠네요. 부처님은 공중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경우 세세생생 공부에 진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부처님이 되셨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지 정신면에선 완전하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부지런히 닦아라, 정진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인간완성, 즉 먹고 먹히면서 예까지 온 여러분들에게 더 진화하여 완성의 길에 이르라고 애쓰신 것입니다. 학교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니 안풀리던 수학문제가 풀리듯이 이 공부에도 스스로 체험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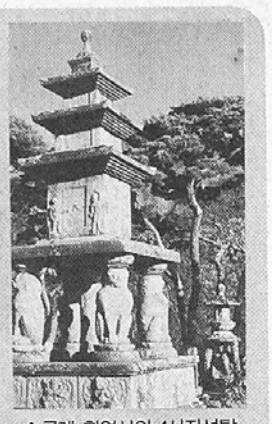
화엄사 4사자 석탑

유교계 출가 비판에 대응 불교의 孝정신 담았다

김주성씨 논문서 밝혀

통일신라에 이르러 유학의 세력이 차츰 신장되면서 불교도의 출가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불교측의 대답이 바로 4사자석탑의 건립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주성씨(전남대 강사)는 최근 〈한국상고사학보〉 제18호에 게재한 '화엄사 4사자석탑 건립 배경'이란 논문을 통해 효와 출가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남 구례 화엄사 4사자석탑(국보 제35호)의 건립 배경을 분석했다. 김씨는 논문에서 "신라 경덕왕대의 효자이자 의상계 화엄종 계통의 인물인 연기법사(緣起法師)가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화엄경 사경을 하였으며, 이를 보관하기 위해 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4사자석탑을 건립했다"고 주장했다.


◇구례 화엄사의 4사자석탑

4사자석탑은 중앙에 있는 인물이 불법을 수호하는 4마리 사자와 함께 불사리를 받히는 공덕으로 인해 천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석탑 앞에는 석등을 세워 그안에 인물상(연기법사)을 조각해 석탑을 공양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 있다. 결국 연기법사는 불사리가 보관되어 있는 석탑과 부모님을 동시에 공양하고 있다는 것.

'역주 고승비문 고려편 2' 가산불교문화硏 발간

그동안 난해한 한자와 문구에 막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역대고승들의 비문(碑文)을 최초로 교감(校勘:교정·감수)하고 역주(譯註)하여 불교사상과 한국학 연구의 1차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 불교금석학의 최초 한글 역주본 시리즈 중 3번째인 〈교감역주역대고승비문(歷代高僧碑文)〉 고려편2가 나온다.

신라편, 고려편1에 이은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의 3번째 불교금석학 번역서인 이 책은 연구원의 '한국불교금석학 강좌'에서 지관스님이 강의한 내용 중에서 고승들만의 비문을 다시 다듬고 원문에 교정주(校正註)를 붙여 역주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29일 오후3시 연구원 강당에서 제5회 가산학술상 시상 및 출간기념회를 갖는다.

(02)765-9602~3.

"한국불교미술 바탕은 화엄사상"

강우방씨 밝혀

중국 일본 등과는 달리 독창적인 면모를 보였던 한국불교미술이 화엄사상과 화엄신앙을 배경으로 성립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우방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가산학보〉(제4호)에 발표한 논문 '한국의 화엄미술론'에서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건축·회화·조각·공예 등 불교미술의 각 장르를 화엄사상과 화엄신앙과의 관련을 통해 고찰했다.

특히 지난해 석굴암이 고대인도의 비례이론에 따라 건축됐다는 논문을 발표했던 강실장은 이 논문에서 석굴암을 화엄사상의 중심개념인 연기와 원융(圓融)의 개념을 총체적으로 나타낸 미술품이라고 강조했다. 강실장은 또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유행했던 '수월(水月)관음도'를 화엄경의 입법계품(入法界品)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삼라만상 마음이 지은 것" 설법

종 각

若人欲了知 (약인욕료지)
三世一切佛 (삼세일체불)
應觀法界性 (응관법계성)
一切唯心造 (일체유심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완전하게 알려고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性)을 보라 모든 것이 마음이 지은 것이니.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직지사

해설 직지사 종각의 주련이 담고 있는 이 구절은 〈대방광불화엄경〉의 요체이다. 〈화엄경〉 자체도 매우 유경한 경전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일체유심조'는 불교에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흔하게 쓰는 용어이다. 그 뜻은 '모든 것이 마음이 지은 것'이란 것으로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가던 중 어둠 속에서 목이 말라 해골 바가지로 물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일체유심조의 도리였다는 얘기는 너무도 유명한 것이다.

아울든 이 4귀절의 내용은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에 의해 지어 진다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 그 의미를 알기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번째 귀절의 관(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관은 '본다'의 의미이지만 산이나 자동차등 사물을 보는 것과는 다르다. 이 경우는 견(見)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관'의 의미는 사물을 직접 형체로 본다는 것보다는 사물이 갖는 본래의 성질이나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등을 살펴서 안다는 쪽에 가깝다. 형이상학적인 의미인 것이다. 때문에 '응관법계성'은 법계의 성품(성질)을 살펴서 확실하게 인지한다는 의미로 풀이해야 무리가 없다.

다시말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개념과 사방, 팔방, 시방등 공간적인 개념을 두루 포함한 법계의 성품(성질)을 두루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지어진다는 것이 이 주련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 귀절은 조석예불시 '종송(鐘誦)'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안동 경안중 교사〉

벼랑끝에 서서 길을 묻는 여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 부처님의 메시지

온세상이 눈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되는 방법! 겸손한 부자가 되는 비결!

석·존·의·목·소·리·에·귀·기·울·여·보·십·시·오

부처님과 여성들

기구한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 새롭게
비구니로 태어난 여인들의 소설같은 삶과 구도의 이야기
여인들의 다친 가슴과 슬픔을 어루만지는
석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십시오.
그 안에 진실로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법과
참다운 부자가 되는 비결,
그리고 여인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벗고
사바세계를 행복으로 살아가게 하는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곽철 편저/335면/6,000원/신국판



최초의 여성불교 바큐멘타리

데리가타 붓타차리타 등 경전 속의 여성십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2동 320 개임빌딩 밀알 진화 5290140~5 팩스 5792312

성하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정소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이경옥 옮김
신국판 전2권 / 각권 7,500원

"문화재 환수 민족혼 되찾기"

수요 인터뷰

한국JC 이 경 훈 중앙회장



"해외 유출 6만5천여점 제자리에 놓아야죠"

'서명·모금 전국민 동참을'…80%가 불교문화재

한국JC(청년회의소)는 지난 4월15일부터 7월중순까지 전국 2백38개 지구에서 '해외유출문화재 환수운동'을 펼쳤다. 한국JC는 서명·모금운동 결과 서명에 참가한 인원은 32만1천6백88명, 모금액은 7월현재 2천1백96만7천여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민족공동체 회복의 길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모두 6만4천8백52점. 각국별 보유현황을 보면 일본이 2만9천6백37점, 미국 1만4천5백62점, 영국 7천1백89점, 독일 5천2백46점, 러시아 2천5백60점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1994년말 현재, 외무부)

한국JC중앙회 이경훈회장은 "민족공동체 회복과 우리 역사와 전통을 되찾는 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문화재 환수를 위한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펼친 것은 국민에게 우리의 전통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회장님은 불자로서 문화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환수운동을 펼치게 된 배경과 의의는 무엇입니까.

▲문화재의 대다수가 적법한 절차보다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민족의 역사와 전통이 함축된 것이기에 잃어버린 문화재를 되찾는 일은 민족정신을 바로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지요.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해 당해국(國)에 제소를 하거나 기타의 적극적인 활동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단지 1965년도에 한일문화협정체결에 따라 일본에서 환수한 2천7백50건이 전부이고, 최근에 일본 독지가가 기증한 3백77점이 여기에 추가되는 정도입니다. 타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이 프랑스로부터 약탈해 간 미술품 28점을 반환한 일이 있고, 현재 그리스, 터어키, 이집트 등이 미국에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복50주년을 맞아 한국JC가 펼친 '해외유출 문화재 환수운동'은 조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 대표 조직의 위상을 보여주면서 대외적으로 한국의 당당한 기상을 보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펼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학습에 도움이 될 자료를 배포하여 좋은 반응이 있었고, 결의대회 및 가두서명운동은 4월15일에 국내 3백65개 지구 중 2백38개 지구에서 시작되어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처음 서울에서 4월15일 오후1시~5시 30분까지 상업은행 명동지점 앞에서 서울지구JC회원 약2백명과 SBS '이 여자가 사는 법' 출연진들이 참가하여 결의대회와 서명운동을 펼쳤는데, 이날 서명 인원이 1만1백명에 달해 무척 고무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대회는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THIS' 담배포장갑 5백만갑에 문화재 환수운동 홍보용 도안을 인쇄하여 전국에 판매한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해외유출문화재의 현황파악을 통해 나타난 결과와 이를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해외유출문화재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껴집니다. 현재도 상당수의 문화재가 밀매되는 등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문화재가 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출문화재에 대한 조사는 정부나 국공익단체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소장가들은 문화재 환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운동이 해당 문화재 소유자들에겐 많은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를 찾는 일은 후손들이 조상의 잃어버린 뿌리를 찾는 작업으로 마땅히 이뤄져야 할 사업입니다. 이는 마치 잃어버린 우리 족보를 찾는 것과도 같은 일이죠.

—구체적인 문화재 환수 방법에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정부의 역할과 불교계를 포함한 민간단체의 역할은….

▲환수라는 용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제법상 강제력도 없고 다만 협조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서도 별 성과를 얻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문화재를 기증받거나 장기임대, 교환전시, 소더비경매 등을 통한 구입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법적 강제력 없어 애로

하지만 이러한 환수 노력보다는 국내외 소재 문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밀수 등의 방법에 의한 유출 및 훼손을 막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은 대국민 홍보와 정부에 대한 압력 등이 있겠지요.

—문화재 환수의 국제법적인 실례가 많은지요.

▲현재 유네스코에 문화재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지금 유럽 각국에서도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의해 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하려고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유출이나, 탈취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나 기준이 없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문화재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재는 그 민족의 뿌리이며 족적입니다. 또한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유출 문화재의 80%이상이 불교문화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 바라는 점은 없으신지요.

▲우리민족이 처음으로 이땅에 정착하여 수용, 토속화, 발전시켰던 문화의 꽃은 불교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계는 찬란하고 고귀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유·무형문화재들을 자체적으로 보존해 5천년 역사에 각인된 조상들의 숨결을 후손에게 넘겨줘야 하겠습니다.

—국내 문화재의 도난, 파괴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대책도 있을텐데요.

▲외국에서는 타문화의 문화재 발굴 및 보존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공사와 고속철도 건설에서 나타나듯 강력한 법적 규제없이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미온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할일이 더 많으실 것 같군요.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서명록과 모금액은 지구·지방JC에서 취합한 결과를 가지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모금액 및 서명록을 직접 전달할 때에는 문화체육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의 방법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재경 기자

나의 수행일기

김덕수 <경주농협 불자회장>

나에게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게해 준 경주불교학생회는 꽤나 오랜 역사를 가진 신행단체였다. 1968년 그때만 해도 대다수의 불교학생회가 그랬듯이 겨우 10~20명의 회원들이 기차역 대합실 드나들 듯하며 오랜 세월속에 빛바랜 단청처럼 퇴색되어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토요일 오후에 가지는 법회에는 한사람 두사람씩 와서는 법당에 들러 삼배만 하고 다시 나와선 쭈빗쭈빗 하다가 휑하니 가곤 하였다. 포교당에 상주하시는 주지스님께서 절을 비우는 등 청소년포교에 관심이 없었으니 누구에게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배워 익히겠는가? 이러한 현상은 이제나 그제나 여전한 것 같으니 말로만의 포교, 전법은 허공계와 중생계에 메아리칠 뿐이다.

회 가입희망자를 위한 '입회원서'를 간단히 쓰도록 하여 경주시내 6개 고등학교 학생수에 맞춰 1만매를 인쇄하였다.

내가 다니던 경주공고는 21학급이었는데 주로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마다 찾아다니면서 안내전단을 나눠주고 간단히 불교학생회를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입회원서를 받았다. 입회원서는 매일매일 회원배가 운동의 추진본부가 있는 법장사로 갖고가서 집계되었는데, 그것이 또한 각 학교간의 경쟁심리를 유발하여 경주공고에서만도 약 250매가, 시내 6개 고교에서 1천2백매가 접수되어 우리들을 감격하게 하였다. 그 다음 주 토요일날 가진 이차돈성사 순교기념법회에는 무려 5백여명의 학생이 모여서 법장사 대웅전(2백명수용)을 가득 메우고 열어놓은 네곳의 법당 문앞은 물론 앞마당에도 꽉 들어 찼다. 당시 분황사 주지로 계시던 도문스님의 폭포수 같은 법문이 대웅전 처마 너머 하늘가로 올려 퍼졌는데, 야단법석(野壇法席)이라서 많은 학생들이 되돌아간 것은 물론이다.

이때부터 경주불교학생회 토요정기 법회에는 1백~2백명의 학생회원이 참석하여 한국불교의 고향이요, 민중불교의 원천인 신라시대로 되돌아가서 이 땅에 다시금 불교중흥을 이루는 듯 하였다.

칠불암서 입시공부, 포교 원세워

세상 어디나 부처님 마을…불교학생운동 대물림

그래도 신심있는 몇몇 사람에 의해 정기법회, 수련대회 주관 및 참가는 그럭저럭 이뤄지고 있으니 부처님 손바닥의 일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던 중 1970년도 여름방학때 경주 남산 칠불암(七佛庵)에 '대입예비고사 준비 학생을 위한 공부방'이 마련되었다. 한달동안 지도하시는 선배 두분과 후원하는 회원 3명 그리고 공부하는 회원 4명 아홉 사람이 아침, 저녁 예불모시면서 바루공양으로 화합과 질서를 유지하며 대중생활을 하였다.

108계단을 물길어 오르내리면서 솔바람 소리와 함께 부처님 나라에 살다가 내려오던 날, 부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침체된 불교학생회를 위해 '회원배가운동'을 벌이기로 아홉의 손을 쌍고 칠불암 부처님 앞에서 원(願)을 세웠다.



◇ '경주불교학생회' 부흥을 서원하던 때의 필자. 경주공고 체육대회에서 응원단장을 맡아 동료학생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 여학생으로 분장한 모습이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그 여름내내 같이 지냈던 고려대 법대 출신의 안흥부 거사의 지도아래 각 학교별 책임자를 정하고 안내전단은 "금강산을 왜 금강산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처님말씀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까닭에 금강이라 합니다. 금강경을 바로 알지 않고 금강산을 말하지 맙시다" 이런 요지의 글로 호기심을 일으키게 하여 법회안내를 하고, 아랫쪽에 자를 수 있도록 점선을 긋고 학생회 가입희망자를 위한 '입회원서'를 간단히 쓰도록 하여 경주시내 6개 고등학교 학생수에 맞춰 1만매를 인쇄하였다.

이와함께 안흥부 거사님은 중고등학생을 위한 영어, 수학강좌를 개설하여 불교학생회에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매주 일요일 새벽에는 고적지(古蹟地)청소를 실시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도 길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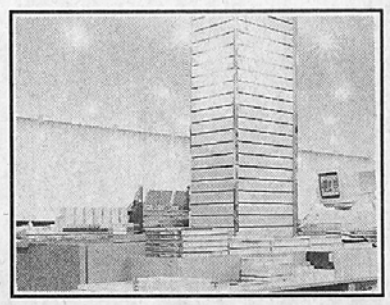
또 신라문화제 때는 탑돌이를 하는데 불교학생회원들 모두가 법복을 맞춰입고 절 만(卍)자 쓰인 고깔을 쓰고 북소리 목탁소리에 맞춰 탑돌이를 하였다. 매년 12월31일에는 경주박물관 봉덕사 신종 전각(殿閣) 앞에 모여 제야(除夜)의 종을 타종하였다.

그 후 경주불교학생회는 부처님오신날 기념 꽃리본을 제작하여 사월초파일 절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가슴에 달아 드려서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보시금으로 학생회기금을 모아놓고 있으며, 매월 음력 보름달이 뜨는 토요일 저녁이면 경주 남산 불적지를 순례하면서 '보름기도'를 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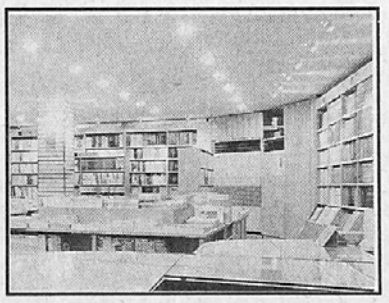
20년도 훨씬 넘은 때에 이루어진 서원은 계속 대물림하여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돈독한 신심에서 시작된 돈 안드는 佛事인 포교사업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부처님 마음이고 이 세상 누구라도 부처님 이웃이 될 때까지 우리의 원은 끝남이 없을 것이다.

불은가득 · 법향가득

책방 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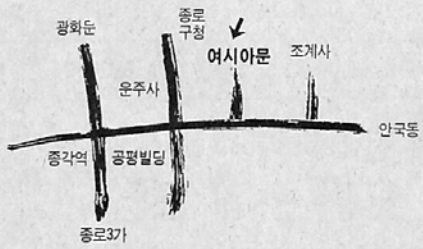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 4. 1.부터 시행)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 · 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

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점직통) 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 :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 32, 59, 84, 159, 331, 588-2번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22〉

雲法師 務學十門(운법사 무학십문) ⑦

李後主 得畵牛一軸
이후주 득화우일축
晝則出於欄外 夜乃歸於欄中
주즉출어란외 야내귀어란중
持貢獻下 太宗 張後苑 以示群臣
지공헌하 태종 장후원 이시군신
俱無知者 惟僧錄贊寧 曰南倭海水
구무지자 유승록찬령 왈남왜해수
或感則灑碛 微露 倭人 拾方諸
혹감즉탄적 미로 왜인 습방제

이후주(중국 남당의 끝임금)가 소 그림 한 폭을 얻었는데
낮에는 소가 그림 틀 밖으로 나오고 밤에는 안으로 되돌아 가거늘
대궐에 가져가 바치니 태종(중국 송 황제)이 후원에 펼쳐놓고 여러 신하에게 보이자 아무도 아는 이가 없고 오로지 승록(승적 관리하는 벼슬) 찬령이 아뢰기를 남쪽 일본바다에 간혹 물이 줄면 여울에 씻긴 자갈이 조금 드러나는데 왜인이 이 자갈을 주워서

鉢盪中 有餘淚數滴者 得之
방석중 유여루수적자 득지
和色着物則畫隱而夜顯
화색착물즉주은이야현

후 두확 검삼관서목 고견어육조구본서중
此乃博聞强識 見幾而作也
차내박문강식 견기이작야
훗날 두확(당나라 관리)이 삼관(황실 서고)의 책 목록을 검사하다가 과연 육조시대의 오랜 책 중에서 발견하니
이는 널리 듣고 많이 알아 기미를 보아서 지어 놓은 것이니라

⑨不求友 無以成
불구우 무이성
生我者 父母 成我者 朋友
생아자 부모 성아자 붕우
故 君子 以朋友 講習
고 군자 이붕우 강습

⑨벗을 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나를 낳은 이는 부모요 나를 이룰 이는 벗이니
고로 군자는 벗으로써 강습하고

以文會友 以友輔仁
이문회우 이우보인
品藻人物 商搉同異 如砥如礪 如琢如磨
품조인물 상각동이 여절여차 여탁여마
劉孝標 云組織仁義 琢磨道德
유자표 운조직인의 탁마도덕

"벗으로써 강습하고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道를 돕는 것이 군자의 경지"

沃焦山 時或風燒飄擊 忽有石落海岸
옥초산 시혹풍소표격 홀유석락해안
得之 滴水 磨色染物則畫顯而夜晦
득지 적수 마색염물즉주현이야회
諸學士 皆以爲無稽
제학사 개이위무계
寧 曰見張騫 海外異記
령 왈견장건 해외이기

歡其險樂 恤其破夷
환기유요 휼기릉이
客通靈嘉之下 遺跡江湖之上
기통영대지하 유적강호지상
風雨急而不輟其音 雪霜零而不瀉其色
풍우급이불철기음 설상영이불유기색
斯乃賢達之素交 歷萬古而一遇
사내현달지소교 력만고이일우

큰 조개 속의 이슬 몇 방울을 얻어 색을 섞어 물건에 바른 즉 낮에는 숨고 밤에는 드러나며 옥초산(큰 바다 속에 있다는 전설의 산)에 때로 큰 바람이 일어 불이 날때 홀연히 돌이 바닷가에 떨어지는데 옥초산(큰 바다 속에 있다는 전설의 산)에 때로 큰 바람이 일어 불이 날때 홀연히 돌이 바닷가에 떨어지는데 이를 얻어 물 몇방울 섞어 갈아서 색깔을 들이면 낮에는 드러나고 밤에는 안보인다 하였다.
여러 선비들이 모두 사례를 알 수 없어 믿을 수 없다 하거늘
찬령이 가로되 장건(실크로드를 개척한 한나라 장군)이 해외의 기이한 것을 적어 놓은 것을 보았다 하였다.

後 杜鎬 檢三館書目 果見於六朝舊本書中

글로써 벗을 모으며 벗으로써 인(도)을 돕는다.
성품과 글로 인물을 가려보고 같고 다름을 헤아리되 자르고 깍고 쪼고 가는 것 같이한다.
유자표(중국 양나라 사람)가 이르기를 인의를 조직하고 도덕을 갈고 닦으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차차 쇠하여 감을 슬퍼하며 늘 마음으로 통하려하고(영대:마음) 자취를 강호에 남겨서(낚시대 드리우고 마음자리를 살핌) 비 바람이 급해도 그 소리가 그치지 않고 눈과 서리가 내려도 그 색이 변치 않는다(부동심의 경지. 기개를 잃지 않음)하였다.
이것이 어질게 통한 이들의 사귐이라 만고의 세월에 한번 만남일까 한다.

龍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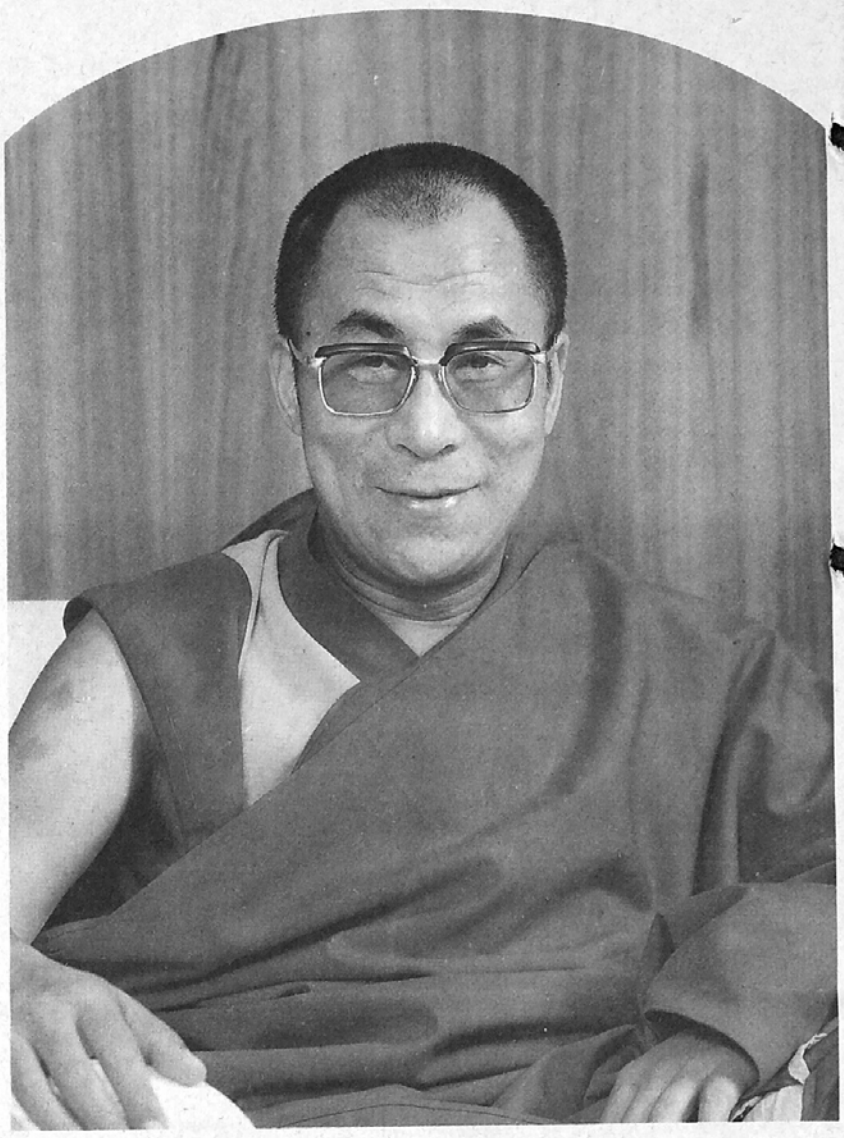
여름 특집 — 해외 고승 지상법석

"업의 과보 받아 들이며

달라이라마

〈티벳〉

티벳의 종교, 정치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1935년 7월6일 티벳 동북지방의 다굿셀이라는 곳에서 제13대 달라이라마의 환생임이 증명됐다.
1939년 포탈라 궁에서 제14대 달라이라마로 즉위하고 12년간 방대한 양의 경전과 논서들을 섭렵했으며, 1959년에는 중국군의 티벳 침공으로 인도 다름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웠다.
35년간 세계 각지를 순방하며 전 세계의 평화와 자비의 실현을 위한 강연을 했으며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종교적 수행은 단순한 육체적 변화나 사찰에서의 생활, 경전의 암송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종교적 수행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 수행은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한다는 관점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만일 누군가 그러한 가르침을 자신의 생각에 받아들인다면 몸과 입으로 짓는 모든 업들은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즉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자기의 생각에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암송한다거나 혹은 사찰에서 생활을 한다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위해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보를 귀의처로 받아들이고, 업과 그 과보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올바로 얻는 길은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

깨달음에 관해 말을 할 때는 매우 가까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며,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천을 해야 할 때는 갑자기 멀게 느껴지며 도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이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점을 알았다고 해서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 수행에 관한 에너지, 집중력 그리고 능력들을 한곳에 모아야 합니다. 인내심, 정성을 다함, 결단력 그리고 계율을 지키며 사는 것을 즐기는 능력 등은 모두 수행을 위한 마음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생기는 일반적인 잘못은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그리고 순수하게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몸의 에너지와 의식의 미세한 층들을 제외하고 잠깐동안의 깨달음의 신호에 신경 쓰지 않고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작은 깨달음의 신호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멀리하여 깨달음을 생각함으로써 수행을 지속적이고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진전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진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화되어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가르침들은 우리들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업들을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일 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당신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업들과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 보십시요. 수행을 잘 했다면 진리의 거울에 어떤 진전의 흔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정화되어 가는지 모르고 우리 존재의 잘못된 부분에서 그러한 신호들을 찾기 때문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저러한 환상들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모든 수행을 충분히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채택해서 천천히 쉬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마음은 진화하는 기관입니다. 스위치를 눌러서 켜거나 끄는 기계가 아닙니다. 마음을 묶어 제한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내던지는 힘은 일시적인 작용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을 닦으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며, 마음을 묶는 힘은 멀리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지와 '나'에 대해 집착하는 증세는 무시 이래로 집착·혐오·분노·질투 등의 본능을 우리 마음에 매우 깊숙히 쌓는 원인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어두운 방을 밝히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수행할 때 어둠의 힘은 약해지고, 어둠을 상대하고 마음을 밝히는 영혼의 힘은 강해지고 확고해 집니다. 그러므로 선정과 삼매를 수행함으로써 평온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 깨달음을 얻은 분입니다. 두 번째로 스승의 위대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5년 8월 31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주 5일 수업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 및 종교학	완전강독 Ⅰ

■ **특 전 :** 졸업후: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해외 고승 지상법석 — 여름 특집

이웃돕는 생활이 수행”

“수행을 하면서 생기는 모든 잘못은 빠른 결과를 기다리는데서 비롯돼요”

한 자비심의 본질을 생각하고, 우리를 고양시킬 수 있는 올바른 관계가 가져오는 좋은 결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부처님을 가르침을 전하는 정신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그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가 두번째 명상의 단계로 나아가기에 충분한 바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정신적 잠재력을 가진 인간의 위대함과 고귀함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가능하게 하는 선천적인 본성을 일으키는 배라고 생각하면 명상수행을 할 때 몸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평범하고 윤회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몸을 보면 단지 물질적이고 사회적이며 생물학적인 요구를 뒤쫓아가는 그러한 도구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정신에 대해 표면적인 욕구만을 만족시킬 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충족된다 해도 죽음의 문을 넘어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정신적 특성에 대해 바르게 평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신비로운 (매우 미세하여 쉽게 알기 어려운) 능력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덧없고 일시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을 닦아나가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매우 튼튼한 집을 지어 놓고도 그 안에 아주 사소한 것들만 갖다 채우는 토끼와도 같습니다.

이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삶에 대해 세속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명상수행을 해야 하고, 먼저 여덟 가지 자유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 육신의 고귀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력해지고 공허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과, 그 본성이 조금만 실현되어도 지금 생에서 추구하는 표면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에 대한 환상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업이 가진 피할 수 없는 법칙과 윤회가 가지는 불만스러운 본성에 대해 반복해서 명상을 한다면 다음 생에서 추구하게 될 세속적인 목적에 대한 환상은 깨어질 것입니다. 덧없는 것에 탐닉하지 않고 항상 해탈의 평온함에 머물기를 열망하는 관점에서 마음을 닦을 때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신의 해탈을 갈망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추진력이 됩니다. 우리는 윤회에 가장 깊숙하게 숨어 있는 힘이 ‘나’에 집착하는 무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근거가 없는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려는 선천적인 습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지각 대상과 저 깊이 숨어 있는 우리 마음의 본질을 자각함으로써 근거 없이 우리를 있게 하는 왜곡과 고통과 혼동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심오한 본질을 이해할 때, 마음이 선천적으로 거짓으로 존재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제거하고 모든 왜곡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심오한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중 세 번째 즉 모든 고통이 소멸된 열반의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티벳에는 드롬이라는 유명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드롬은 탑 주위를 걸어 다니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탑 주위를 걸어 다니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수행은 더 좋은 일이다”

경전을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경전을 읽고 있는데 드롬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수행은 더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 나는 명상을 하고 그것은 분명히 수행이다’

드롬은 명상을 하는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명상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수행은 더 좋은 일입니다.”

그 사람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드롬은 대답했습니다.

“지금 삶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수행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드롬은 생각에 의지한 수행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 생을 포기하고 수행을 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위한 수행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남을 속이기, 거짓말 등의 도덕적이지 못한 생활은 종교적 수행과 반대가 되며 두 가지는 함께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수행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은 수행이라는 특별한 방식을 취하여 정부를 꾸려나가는 일, 경제적 척도를 향상시키는 일, 또는 다른 사람의 복지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든 단계를 받아들이는 일 등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수행에 바탕을 둔 사고방식을 항상 지니고 살아갈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종교적 수행을 한다면 그가 출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탈은 실현될 것이다.

인도와 티벳의 왕과 사제들의 경우처럼 만일 그러한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출가했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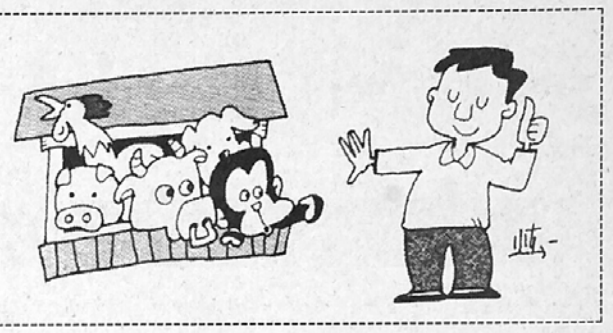
나쁜 윤회를 일으키는 원인들이 생길 것이다.

땅속의 구멍에서 동면하는 땅쥐처럼.

‘나’ 집착하는 무지는 윤회의 힘“부단히 닦아야”

욕망 쫓으면 동물적 삶… ‘진리 거울’에 비춰보길

덧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수행하면 출가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은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34

양 형 진

삶에서 깨어나기

인간의 위대함은 불성을 자각한다는 것

맹목적 삶에서 절대자유의 세계로 전환

소크라테스는 현자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지혜의 신인 아폴론의 신전을 찾아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신탁의 결과는 소크라테스 자신이 이 도시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 신탁을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하였다.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는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기로 하였다.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나서 그는 그 신탁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소크라테스가 이전에 훌륭했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몰랐다.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현명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현명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처럼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전을 찾아가서 누가 가장 현명하느냐고 물으면 두 말않고 인간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 그러냐고 다시 물으면 인간은 언어나 도구 혹은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며 그런 차이 때문에 인간은 가장 훌륭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인간과 여타 생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별하여 구분지으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다른 동물들이 위험 신호를 서로에게 전달한다거나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인간처럼 고도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언어라는 것이 인간에게만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또한 도구나 불을 사용하는 것도 인간에게 손과 지능이 진화를 거치면서 어느 수준 이상 발달되었기 때문이지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진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인간이라는 종에게는 지능이라는 능력이 특히 발달된 것 뿐이다. 그런 식으로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 하늘을 날지 못하니까 새보다 열등하며, 물속에서 빠르지 못하니까 물고기보다 열등하다고 해야할 지 모른다. 각각의 생물종이 저마다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키우며 진화해왔는데, 생물종의 우열을 지능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로 잰다는 것이 그렇게 쉽사리 정당화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인간의 위대한 점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에게 만약 위대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성을 자각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소크라테스가 무지를 자각함으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듯이, 우리 인간은 불성을 자각함으로써 위대해질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왜 위대하다고 해야 하는가?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년 정도이고 그 땅위에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은 약 30억년 전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물종이 있은 이후 그들은 오직 살기 위해 살았을 뿐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맹목적인 생의 의지 만으로 삶을 영위하며 종을 번성시켜 왔다. 그들 중생에게 세계는 자신이 잡아먹을 수 있는 것, 자신이 잡혀 먹힐 수 있는 것, 그리고 종족을 번성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서만 의지를 갖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감관은 밖으로 열려있어야만 하였다. 그래야만 먹고 먹히는 것을 구분하는 데에 편리했기 때문이다. 진화의 한 정점에서 인간이라는 종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지만 그 어느 다른 생물종보다도 심한 탐욕을 가진 존재였을 뿐이다.

이 중생적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우주적 사건이 바로 불성의 자각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으므로 이 가능성이 우리에게 알려진다. 밖으로만 향했던 우리의 감관이 안으로 모아지고 상과 견해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와지면서 모든 법이 평등하다는 깨달음의 소식을 전해듣게 된다. 진화의 고리에서 나왔음에도 더 이상 맹목적 생의 의지에 끌려다니지 않는 주체적이고 절대적인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는 실로 30억년의 역사를 가진 맹목적이고 중생적인 삶에서 깨어나는 일이다.(얼마전 나온 책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좋아 이 글의 제목으로 인용한다) 무기물에서 유기체가 생기고, 유기체에서 생명이 생기고, 그 생명의 한 가운데에서 생명을 뛰어 넘으면서도 생명을 버리지 않는 해탈의 연꽃이 피어나게 되었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생활 한자와 예쁜 글씨를 함께 배우는

每日漢文

매월 4,000원
일시불 값 10,000원
통신 주문제 실시

漢字를 모르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비결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 속에 漢字로 된 우리말이 70%
가정과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지.
3개월 코스!

주요내용 : 명심보감 해설 / 고사성어 / 일반 상식 / 1일 1언(금언)

도서출판 한넋다비드
전 화 : 551-8474~5
우체국 : 013805-0016528
국민은행 : 067-0170-091

나만의 개성과 우아함 청우

JEWELRY CHUNGWOO

섬세하고 정교한 제품,
서정적인 주제와 독특한 감성표현,
각개인의 개성을 소중히 하는
디자인.....
청우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만나십시오

흔수예물에서 다양한
보석장신구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품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청우 유자야

전시경력
1971~1972 국전 서양화 부문 입선 20회 21회
1976 파리 니엘재산 공모전 입상
1977 파리Cite International des arts 주최 전람회 출품
1978 불란서 전국 사진공모전 출품
1979 불란서 파리 미술대학 미술 석사학위 취득
1979 파리 프리마그 로지에 공모전 입상
1980 파리 화랑 전람회 출품
1977 불란서 예술원 공인 미술작가
1980.6 제 1회 개인전(신세계 백화점 화랑)
1982~1984 한국 공예가회 출품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5-1,2
한양타운 107호 / 우편번호 135-120
TEL 3442~4434~5

고은 불교 대하소설



〈 37 〉

다시 동행

이제 합두는 그저 아름다운 니승(尼僧)만이 아니다. 그의 아름다움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어떤 거룩함이 요구되고 있었고 그 거룩함에는 필수적으로 범속한 사람보다 아주 영특한 동물들이 본능적인 힘에 의해서 먼 곳이나 다른 세계에 대한 직감을 가진 것처럼 그런 직감이 스며나오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그녀가 우녀와 함께 지낼 수 있었던 행운 때문인지 모른다. 누가 누구와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녀를 통한 합두의 놀라운 발전이었다.

고름지기 악우(惡友)를 멀리하라는 경책은 이 토록 선우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경지의 합두가 염마의 세계에 비치되어 있는 정파리의 거울을 그의 영식(靈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그녀의 경지가 우녀의 경지에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바로 이런 사실을 우녀 쪽에서 재빨리 짐작한 뒤 후원의 일도 그녀가 합두를 부리는 것으로부터 그 일을 두사람의 순번으로 나누어 하게 되었다.

밥 입정을 마치고 나서 그녀들의 처소로 돌아왔다.

"아무래도 합두스님은 이승에 재미가 없나보군요."

말투가 깎듯하였다. 우녀의 그 오래된 집의 기둥과도 같은 오만이 어디로 사라진 것 같았다.

"하기야 이승 이 사바세계가 아주 좋아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말에도 합두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지금 그녀는 어느 누구와의 대화 따위에 섞여 들어갈 여지가 없게 아까의 갈대 정사에서 이어지던 염마의 세계에 대한 관심에만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옷도 갈아 입지 않은채 그녀의 장자리에서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오직 거울만이 그녀의 투명한 의식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었다. 여기서 투명하는 것은 우녀나 합두들의 신령스럽기까지 한 의식이란 그들의 눈과 대상 사이에 어떤 지식이나 이치따위의 막(膜)을 개재시키지 않는 직시(直視)를 뜻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은 이전의 세계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현실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상상의 궁극에 있는 현실인지 모른다.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거울은 그 표면의 밝은 것과 달리 그 이면은 한없이 깊은 어둠의 저쪽인 것이다.

동시에 그 거울은 한 인간이 살아 온 모든 과거가 하나도 빠놓지 않고 비추어져 있는 행위의 만원(滿員)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일체의 가감없는 기록이기도 하다.

어떤 변명도 효과가 없는 극사실(極寫實)의 세계가 바로 거울의 밝은 표면에 나타남으로써 그것이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까지 지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 거울이 바로 심판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사령(死靈)이 다급한 나머지 어떤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면 염마의 세계를 주재하는 염라대왕이 그 거짓말의 핫바닥을 뽑아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염라대왕은 결코 사납지 않다. 본디의 상고시대 인도의 이름은 '야마'인 이 염마의 주재자는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인간으로써 최초로 죽은 인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 죽은 뒤의 세계에 최초로 도달함으로써 그곳의 주재자가 되었던 것이다.

야마의 세계는 하늘에 있었다. 늘 음악이 흐르고 꽃이 만발해 있고 향기가 꺼질 줄 모르는 상락(常樂)의 세계였다. 그 누구도 그 세계에서 순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하늘 속의 그 무아(無我)처럼.

그런데 그런 세계에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본래의 세계가 아니게 되어서 거기에 태어나는 자 가운데 악업이 늘어나기에 이르러 아주 혼탁한 세계로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때 야마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져서 악업을 지옥으로 보내어 수용할 수 있었다. 야마는 이런 과정에서 천국보다는 지옥을 관장하는 일에 여념이 없게 되었다. 그가 사납지 않은 것은 본디 그가 천국도 관장하는 주재자였음을 기억하게 한다.

어쨌거나 이런 염마의 거울에 날날이 비추어진 선업과 악업에 따라 7일동안의 유예를 받은 자는 그 7일 뒤에 변성왕(變成王)의 재판을 받게 된다.

변성왕은 저울과 염마의 거울과 같은 거울을 함께 사용해서 아주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거울의 이면! 그 어둠 저쪽의 세계야말로 거울의 표면에 비추어진 일체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바로 그것이 염마의 거울인 것이다.

합두의 눈이 그 거울에 비추어지는 그녀 자신의 지난 날을 미리 볼 수 있었다. 이제까지 그가 살아온 것이 미리 그 거울에 비치어져 상상세계처럼 그려지고 있는 그녀의 자취들이야말로 그녀를 이 세계만의 사람이 아니게 하였다.

그녀는 이승에 있되 이승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눈빛에는 사람의 그것이기보다 어떤 귀기(鬼氣)가 서려있는 것이었다.

"합두스님!"

이라고 큰소리로 불러서야 이미 촛불을 꺼버린 어둠 속의 방에서 그녀자신의 눈에서 쏘아대는 파란 눈빛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가슴곽은 진땀으로 적셔져 있었다.

그녀의 영혼이 커다란 체험을 하고 있는 동안 그녀의 몸은 땀으로 젖어있을 만큼 아주 힘겨운 역할을 하는 냇적 운동을 계속했던 것이다.

그녀는 옷을 입은채 풀썩 쓰러졌다.

그때 우녀가 그녀에게 어머니나 언니처럼 다가가서 합두가 입고 있는 옷을 하나 하나 벗겨주었다.

이상한 것은 그렇게 옷이 벗겨지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한채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 가사(假死)상태로 된 합두였다.

두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큰 10여평의 그 니승 처소는 이렇다할 살림살이도 없는 만큼 황량그렇하였다. 장차 불어날 니승들을 예상하고 이런 큰 방이 된 것이었다.

우녀가 촛불을 밝혔다. 그녀의 부싯돌짓은 몇번인가 반짝거리는 마찰로 실패했다가 불이 붙게 된 것이었다. 그 촛불이 균형을 잡고 빛나기 시작하자 그 불빛에 비치고 있는 합두의 죽은듯한 나신은 실로 한란한 한 작품과도 같았다.

"아름답도다!"

라는 우녀의 낮은 감탄조차 전혀 맞지 않는 헛소리였다.

실로 합두의 한 오리 부끄러움도 지니지 않은 나신, 있는 그대로의 무심(無心)의 나신, 어떤 시작이기도 하고 어떤 종말이기도 한 그 지극한 아름다운 형상으로서의 나신, 하지만 그것이 혼백으로부터 격리된 죽음일진대 바로 썩기 시작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악취와 가장 보기 흉한 부패물로 바뀌어진 나신이 그 순간의 무상(無常)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의 실체를 유감없이 드러내주고 있는 나신이었다.

어떤 여색에 굶주린 사나이가 이 나신에 마구 덤벼들을 수 있겠는가. 어떤 늙은 소경이 이 나신에 떨리는 손으로 더듬거리며 다가올 수 있겠는가. 어떤 부자가 만금을 바쳐 이 나신을 살 수 있겠는가.

그녀는 아무런 침해도 접촉도 불가능한 대상으로서 거기 누워있었다.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이 나신의 합두를 한번 흘렁대는 촛불 뒤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던 우녀가 다시 한번 감탄해마지 않았다.

그 뒤로 우녀는 침점 그녀의 정신이 비정상적으로 되어갔다. 합두의 눈이 쏘아대던 귀기가 어느덧 그녀의 것이 되어 그 귀기 서린 눈빛으로 합두의 나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난폭하게 열리면서 그들의 방안에 들이닥친 사나이가 있었다. 불이였다. 불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아무런 말도 개념, 개념이 없이 그가 우녀를 잡아 이끌어 밖으로 내팽개친 것은 그 다음의 순서였다. 우녀의 정신상태가 평상 그대로가 아닌 상태에서 난데없이 나가떨어지자 그 니승 처소의 바위로 된 마당 끝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한동안이 흘러갔다. 불이는 합두의 나신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마치 우녀가 노려보던 것을 교대하기라도 한 것처럼.

한동안이 흘러갔다. 불이는 실컷 합두를 마치 그 나신의 모든 부분이 다 뚫어지도록 쳐다본 뒤 방안의 촛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그 촛불을 갈대지붕에 던졌다. 그런 뒤 그 촛불이 지붕에 붙붙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한 그가 방안으로 들어왔다.

"함께 갑시다, 합두스님!"

이라고 말하고 그 합두의 나신 곁에 그도 누웠다. 그도 합두처럼 나신이 되었는지 그럴 겨를이 없었는지 모르거니와 이미

> "함께 갑시다, 합두스님" 불이는 합두의 나신 곁에 누웠다. 이미 그 처소의 지붕과 외를 엮은 벽들은 시뻘건 불이 붙었다. 그 불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처소의 지붕과 외를 엮은 벽들은 시뻘건 불이 번져서 밤 2경쯤의 바닷바람에 의해서 눈깜짝할 사이 없게 집 전체가 불 속에 쌓여버렸다.

그 불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타기 시작한 것이다.

우녀가 마당 끝의 바위에 내던져져 머리를 찧고 혼절한 뒤 깨어난 것은 그들의 니승 처소가 불로 덮여서 그 불의 뜨거움이 그녀의 의식을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합두스님!"

라는 소리 밖에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고 우녀는 눈물범벅 거품범벅의 얼굴에 불빛이 얼룩지고 있었다.

이미 갈대정사 큰방의 인담과 과현 수원 수월들도 뛰쳐나와 불덩어리가 된 집채에서 좀 떨어져 서 있었다. 그들 중의 누구도 바닷물이라도 퍼다가 불을 죽일 생각이 날 수 없었다. 왼낙 불길은 세고 불에 타는 집채는 이제까지 불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활활 타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본즉 아까 그 불 속에서 어떤 비명이 들린 것 같기도 하였다. 그 비명은 남자의 것이었다. 불이의 것이었다.

그렇다면 합두는 이미 그의 혼백이 몸을 떠난 상태로 누워있었던 것인지 모른다. 그 이승 최후의 아름다운 나신으로 완성된 채 그녀는 다른 세계로의 긴 여행 첫걸음에 나서고 있었던 것인가.

아름다움이란, 아름다운 여자란 그 궁극에서는 성(性)을 죽이는 일로써 그 보상(補償)없는 역할을 미치는 것인가.

그림 · 조향숙

> 최후의 아름다운 나신으로 완성된 채 그녀는 다른 세계로의 긴 여행 첫걸음에 나서고 있었다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 단, 특정 여러분의 정치색 띠에지 하나 본지의 허용 없이 많은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 (02)737-0697

활천당 한약방 (대구 약전골목 중간) 한약의 명소 40년 전통 간업 간경화증 상담 요함 •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86-1 (053-252-8274)

조 문 객 -절대송식- 이조 924-9211 과농 925-4961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총판 윤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재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직 좋아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실내외 벽화 · 병풍 및 액자화 작품 •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불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서울 · 지방 · 외국 어디나 그림만 보내 주문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171-1 전화 (02)3273-0681 은행 국민은행 입금계좌 823-24-0171-328 (주인)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회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 · 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聖鐘社 대표 元光植(茂山) 합장 (02)733-6141 (서울사무소) (0331)283-2083 (공장)

윤 조각실(불교미술원) ■ 부처님 조성 ■ 청동불 조성 ■ 대불조성 ■ 천불전 ■ 개금 제14회 불교미술전 우수상수상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16-1 전화 713-3560, 214-8963

般若 설비 종합공사 서울시 지정업체 허가 21-304호 기업, 가스보일러 1급, 2급 기능사가 시공함 불심과 공익 완벽한 시공 A/S 철저히 APT인테리어 대표:허성호(공법) 전화번호 주 야: 4242-511, 4822-511, 4252-025 FAX 477-2751 호출기: 012-274-1727, 012-804-2025 휴대폰 011-267-2510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73-11(삼전불교종합복지회관 옆)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 법상 · 경상 • 이천(대흥사) 대웅전 주미단 닫집 공예 • 서울(백흥사) 법상 주미단 등의 조각품 • 충남(갑사) 대웅전 문짝 • 통영(안정사) 대웅전 영산회 후불탱화 • 상남(법흥사) 대웅전 문짝 등등 • 충주(성덕사) 대웅전 주미단 법상 경상 • 마산(전관사) 대웅전 주미단 등각 • 포천(약사사) 대웅전 문짝 등등 • 단양(보문사) 대웅전 주미단(닫집)경상 경상 • 서울(백흥사) 법상 조각 다수 시공 대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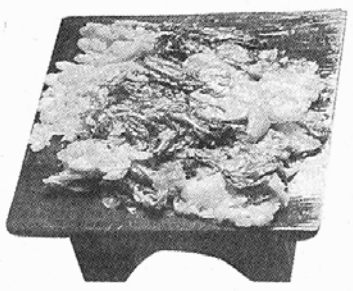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 · 재수생 · 직장인 ·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입학 문의전 화장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전화한 1 : 1 「담임 관리제」 ※ 한글 수생 1개월 입계 학력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 ➡ (영 · 수) 「비디오개별교사」 특별제공 (15시간) 등저한 학습관리 ! 전화접수 (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 수학) 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무고하고 뼈저리게도 한을 많이 맛보았고 학력 때문에 많은 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합격했고 작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국졸고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회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오도 함께 늦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주변에나 저와 같은 입장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 최경일(남, 27세) 드림 —

대한교육평가원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우회안청빌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지덕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피비스 080—023—4600

요리는 '수행'…먹을 땐 '건강식'

여름별미 사찰음식


◇ 들깨국수


◇ 상치불뚝전


◇ 치잎무침


◇ 김부각

상치불뚝전·초잡채·김부각 등 재료 흔하고 입맛 돋워

옛부터 사찰의 스님들은 음식을 만드는 것 하나까지도 수행으로 여기며 무더운 여름을 이겨 왔다. 그 정신을 되새기며 스님들의 손끝을 통해 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전통사찰음식을 만들면서 이 더위를 한번 잊어보자.

상치불뚝전 1)상치를 밑동부터 껍질을 벗기고 칼등으로 두드려 씻어 쓴물을 뺀다.

2)밀가루에 물 1컵을 붓고 된장, 고추장을 넣어 약간 걸죽하게 반죽한다.

3)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뜨거워지면 손질한 상치불뚝을 위아래가 엇갈리게 4~5개정도 놓고 밀가루 반죽을 얇게 끼얹어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어서 잠깐 더 지진다. 초간장을 곁들여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초잡채 1)콩나물을 머리와 뿌리를 다듬어 살짝 삶아 차갑게 식히고, 우엉은 껍질을 벗긴 후 가늘게 채썰어 삶아 차가운 물에 식힌다.

2)다시마, 고사리, 도라지도 삶아서 6센티미터 길이로 가늘게 채썰고, 무, 당근, 사과, 배, 밤은 껍질을 벗긴후 6센티미터 길이로 가늘게 채썬다.

3)은행은 삶고, 잣과 석류도 손질한다.

4)겨자소스를 만들어 콩나물 삶은 국물과 혼합한다.

5)준비한 재료들을 한데 담고 고추가루로 버무려 빛깔이 나면 겨자소스를 넣고 버무려 접시에 담아낸다. 톡 쏘는 겨자 맛이 더할나위없이 시원하다.

김부각 1)윤이나는 김을 골라 손질해 놓는다.

2)볶은 통깨를 준비한다.

3)냄비에 찹쌀가루와 물을 넣고 풀어 소금으로 간한 다음 잘 저어가며 찹쌀풀을 중탕으로 연하게 쑤어 볶은깨를 넣어 식힌다.

4)준비한 김 한쪽에 찹쌀풀을 칠하고 풀칠한 면에 다른김 한장을 마주 붙여서 말린 후 가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콩기름에 튀겨낸다.

차잎무침 1)우려마신 녹차잎을 모아두었다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2)여기에 조선간장과 참기름, 깨소금으로 간을 맞춰 무친다. 녹차는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해주고 비타민C가 풍부해 건강식으로 그만이다.

들깨국수 1)밀가루를 뜨거운 물에 반죽하여 말대로 얇팍하게 밀어 5센티미터 너비로 만 다음 곱게 채치듯이 썬다.

2)들깨는 잡티를 골라내고 물에 담갔다가 믹서에 곱게 간다.

3)애호박과 표고는 각각 채썰어 기름 두른 후라이팬에 볶다가 간장과 깨소금으로 간을 맞춰 따로 담아둔다.

4)냄비에 물을 붓고 곱게 간 들깨즙을 넣고 끓이다가 칼국수를 넣고 삶는다. 국물을 넘기지 않아야 들깨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 볶은 애호박과 표고를 얹어 상에 내면 저절로 군침이 도는 담백한 여름철 영양식이 된다.

이은자 기자

교계 요리연구단체 강습 다채

천태종 삼광사 '불교전통요리연구보존회(회장 주량월자)'가 지난 15일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사찰전통요리의 계승과 연구개발을 위해 창립된 불교전통요리연구보존회는 앞으로 정갈하고 맛깔스런 사찰음식을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 사찰요리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10시 삼광사 법화삼매당에서 진행된다. (051)808-7111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스님)의 발우회도 매월 15일과 30일 전통사찰음식에 대한 기초교리공부와 유서깊은 사찰을 탐방해 실습을 해오고 있다.(02)245-0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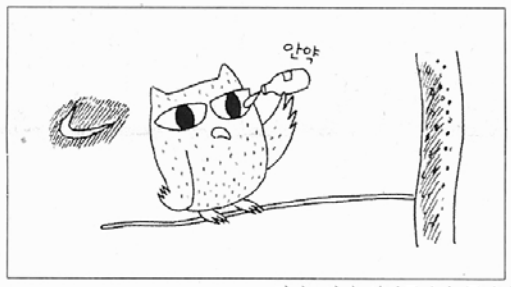
이와함께 매일 오전 10시~11시에 방송되는 btn 아침종합정보프로그램 날마다 좋은날 선재스님의 '불가요리 코너'등을 통해서도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깃들어 있는 전통사찰음식의 비법을 전수 받을 수 있다.

이른 후 건강칼럼

<29>

알쯔하이머병

안약사용 발병유무 판가름…초기증세 자가 진단



알쯔하이머병이라고 하면 이제 대중대체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름 자체는 낯설지가 않다. 알쯔하이머병은 노망이 일찍 온 것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병이다. 인구의 분포가 노령층이 점점 증가해 감에 따라서 자연히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그 관심에 비해 치료적인 수준은 대단히 미미하다. 의학적인 확진은 어렵지가 않다. 그러나 번거로운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 알쯔하이머라는 병을 진단할 뿐 그 치료에는 효과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번거로운 확진절차를 통하지 않더라도 진행되고난 뒤의 증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외신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진단법 대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알쯔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바드대학의 연구팀에 의해 진행된 이 진단방법은 안약으로 하는 진단이다.

안약 한방울을 눈에 넣고 30분 정도 지나면 금방 알쯔하이머 병의 유무를 판가름할 수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원인 가운데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이란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에 착안한 것이다.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늦춘다고 알려진 트로피카마이드(Tropicamide)라는 약물을 희석하여 눈에 넣으면 30분 정도 지나 동공이 커지게 된다. 이때 커지는 동공의 크기가 평균 5% 정도로 커지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알쯔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동공이 무려 25% 정도 커진다.

아직 일반화된 방법은 아니지만 많은 임상실험을 통해 곧 일반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약물을 쓰지 않고도 자기의 증상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초기증세 10가지를 발표하여 우리들의 주목을 끈 것이 있다. 미국에 있는 알쯔하이머병협회가 주의해볼 초기증세로 제시한 열가지 증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에 기억이 떨어져 늘 하는 직장에서의 일까지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낀다. 셋째 언어구사에 문제가 생긴다. 넷째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못한다. 다섯째 판단력이 낮아진다. 여섯째 추상적인 사고력에 문제가 생긴다. 일곱째 물건을 잘못 간수하거나 잃어버린다. 여덟째 기분이나 행동에 여러 변화가 있다. 아홉째 성격이 바뀐다. 열번째 주도권과 독창성이 떨어진다. 스스로 한번 가늠해 볼 일이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이 향 원

* 악(惡)의 장 *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앙을 입는다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 (02)273-1239
대표 이 강 화 합장

단청 · 불상 · 탱화 · 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92호※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 문의처 : 468-8329
■ 호출기 : 012-307-8329
박 석 언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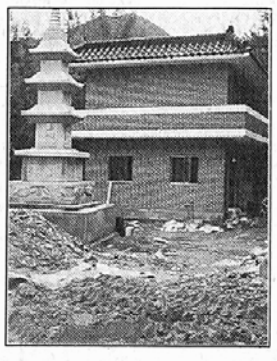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 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 :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 (02)735-6795 · 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 해 창

한남상사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612-5
전화번호 : 02)795-4083
팩스 02)792-9659

천혜의 기도도량
금수산 천진사
단양 팔경의 하나인 구담봉, 옥순봉을 굽어보며 금수산 품에 안긴 천혜의 기도도량 천진사 함께 기도하며 이 국토를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려는 불제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는 도량입니다.
조 용히 머물며 기도 정진하실 스님 (비구니 스님이나 연로하신 스님도 좋습니다)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법 당을 관리하면서 기도하실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연락처 단양 천진사 : 0444-423-2085
서울 법천사 : 02-762-2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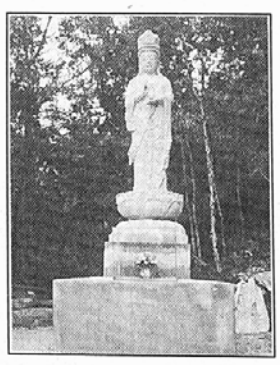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렵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2분도현미 (먹기 어렵다)
3분도현미 (먹기 쉽다)
4분도현미 (먹기 더쉽다)
5분도현미 (먹기 더욱 쉽다)
6분도현미 (먹기 더더욱 쉽다)
백미10분도 (씹는이 전혀 없다)
"입맛대로 주문,배달"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231-5421~2
235-1846~7

정통 중국어 속성강좌
냉·난방, 최고급 시설과 어학실습실 완비
중국 사범대학 교수 초청강의 책임지도
기초반, 회화반, 유학반, 비지니스반
■ 스님 유학반 모집(이미 출국유학중)
■ 학위및 자격취득 책임보장
■ JW 202 유학허가및 입학통지서 보장
■ HSK 시험대비 중점 강의
中國語 : 漢文 : 書法
평일 6:30~22:00(9월 학기 유학생 모집)
특별반 토→14:00~18:00 일→10:00~18:00
정기 학원생 취업보장(수시접수)
상담 : 代 (02) 246-8256, 246-8257
韓中語學院
원장 : 중국 할빈 사범대학교 경제학 교수
중국 학위 심사위원(한국인 최초)
관허 1670호 기업진출상담



인수사찰 증설에 참여하실 분
• 사찰 부지 및 도로 옆 휴게소 가든
건물 55평(현재 성업중)
• 대지 주차장 300평
신축 모텔 부지 1,000평 } 매도가 5억원
-가든 휴게소 건물 2·3층 모델 증축 가능지
-농산물·일용생활품 매점 가능지
연락처 집(조석) 0441-851-3866
사찰(12시) 0441-853-2896
FAX 0441-43-7364
※ 불교신자·독지가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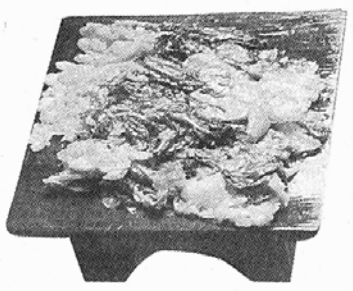
법당 신축 협찬자 구함
-충주댐 강변 진입도로변 별장지
:계명산 사찰 신축 요지
• 석굴암 본존 석가모니 불상 7자 높이, 굴 50평
• 석가 5층탑 22자 높이
• 관세음보살상 15자 높이
• 아미타불 자상고 5자 높이
• 요사채 2층 방 6
〃 1층 방 3 } 35평형
-대지 705평 도로 포장 시설지
• 현 5억 투자 시설된 곳 이후 5억 투자하실 분 구함
• 향후 법당, 대웅전 증축, 요사채 및 산신각 증축 계획
• 기설사찰, 신축지 1,000평 내외 양도 가능
※ 사찰 운영할 보살, 스님, 독지가, 새사찰개발 운영하실 분 환영



요리는 '수행'…먹을 땐 '건강식'

여름별미 사찰음식


◇ 들깨국수


◇ 상치불뚝전


◇ 치잎무침


◇ 김부각

상치불뚝전·초잡채·김부각 등 재료 흔하고 입맛 돋워

옛부터 사찰의 스님들은 음식을 만드는 것 하나까지도 수행으로 여기며 무더운 여름을 이겨 왔다. 그 정신을 되새기며 스님들의 손끝을 통해 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전통사찰음식을 만들면서 이 더위를 한번 잊어보자.

상치불뚝전 1)상치를 밑동부터 껍질을 벗기고 칼등으로 두드려 씻어 쓴물을 뺀다.

2)밀가루에 물 1컵을 붓고 된장, 고추장을 넣어 약간 걸죽하게 반죽한다.

3)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뜨거워지면 손질한 상치불뚝을 위아래가 엇갈리게 4~5개정도 놓고 밀가루 반죽을 얇게 끼얹어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어서 잠깐 더 지진다. 초간장을 곁들여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초잡채 1)콩나물을 머리와 뿌리를 다듬어 살짝 삶아 차갑게 식히고, 우엉은 껍질을 벗긴 후 가늘게 채썰어 삶아 차가운 물에 식힌다.

2)다시마, 고사리, 도라지도 삶아서 6센티미터 길이로 가늘게 채썰고, 무, 당근, 사과, 배, 밤은 껍질을 벗긴후 6센티미터 길이로 가늘게 채썬다.

3)은행은 삶고, 잣과 석류도 손질한다.

4)겨자소스를 만들어 콩나물 삶은 국물과 혼합한다.

5)준비한 재료들을 한데 담고 고추가루로 버무려 빛깔이 나면 겨자소스를 넣고 버무려 접시에 담아낸다. 톡 쏘는 겨자 맛이 더할나위없이 시원하다.

김부각 1)윤이나는 김을 골라 손질해 놓는다.

2)볶은 통깨를 준비한다.

3)냄비에 찹쌀가루와 물을 넣고 풀어 소금으로 간한 다음 잘 저어가며 찹쌀풀을 중탕으로 연하게 쑤어 볶은깨를 넣어 식힌다.

4)준비한 김 한쪽에 찹쌀풀을 칠하고 풀칠한 면에 다른김 한장을 마주 붙여서 말린 후 가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콩기름에 튀겨낸다.

차잎무침 1)우려마신 녹차잎을 모아두었다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2)여기에 조선간장과 참기름, 깨소금으로 간을 맞춰 무친다. 녹차는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해주고 비타민C가 풍부해 건강식으로 그만이다.

들깨국수 1)밀가루를 뜨거운 물에 반죽하여 말대로 얇팍하게 밀어 5센티미터 너비로 만 다음 곱게 채치듯이 썬다.

2)들깨는 잡티를 골라내고 물에 담갔다가 믹서에 곱게 간다.

3)애호박과 표고는 각각 채썰어 기름 두른 후라이팬에 볶다가 간장과 깨소금으로 간을 맞춰 따로 담아둔다.

4)냄비에 물을 붓고 곱게 간 들깨즙을 넣고 끓이다가 칼국수를 넣고 삶는다. 국물을 넘기지 않아야 들깨맛을 제대로 낼 수 있다. 볶은 애호박과 표고를 얹어 상에 내면 저절로 군침이 도는 담백한 여름철 영양식이 된다.

이은자 기자

교계 요리연구단체 강습 다채

천태종 삼광사 '불교전통요리연구보존회(회장 주량월자)'가 지난 15일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사찰전통요리의 계승과 연구개발을 위해 창립된 불교전통요리연구보존회는 앞으로 정갈하고 맛깔스런 사찰음식을 널리 보급할 계획이다. 사찰요리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10시 삼광사 법화삼매당에서 진행된다. (051)808-7111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소장 적문스님)의 발우회도 매월 15일과 30일 전통사찰음식에 대한 기초교리공부와 유서깊은 사찰을 탐방해 실습을 해오고 있다.(02)245-0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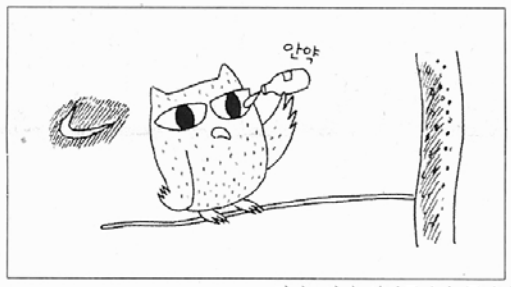
이와함께 매일 오전 10시~11시에 방송되는 btn 아침종합정보프로그램 날마다 좋은날 선재스님의 '불가요리 코너'등을 통해서도 조상들의 지혜와 정성이 깃들어 있는 전통사찰음식의 비법을 전수 받을 수 있다.

이른 후 건강칼럼

<29>

알쯔하이머병

안약사용 발병유무 판가름…초기증세 자가 진단



알쯔하이머병이라고 하면 이제 대중대체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름 자체는 낯설지가 않다. 알쯔하이머병은 노망이 일찍 온 것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병이다. 인구의 분포가 노령층이 점점 증가해 감에 따라서 자연히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그 관심에 비해 치료적인 수준은 대단히 미미하다. 의학적인 확진은 어렵지가 않다. 그러나 번거로운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 알쯔하이머라는 병을 진단할 뿐 그 치료에는 효과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번거로운 확진절차를 통하지 않더라도 진행되고난 뒤의 증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외신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진단법 대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알쯔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바드대학의 연구팀에 의해 진행된 이 진단방법은 안약으로 하는 진단이다.

안약 한방울을 눈에 넣고 30분 정도 지나면 금방 알쯔하이머 병의 유무를 판가름할 수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원인 가운데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이란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에 착안한 것이다.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늦춘다고 알려진 트로피카마이드(Tropicamide)라는 약물을 희석하여 눈에 넣으면 30분 정도 지나 동공이 커지게 된다. 이때 커지는 동공의 크기가 평균 5% 정도로 커지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알쯔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동공이 무려 25% 정도 커진다.

아직 일반화된 방법은 아니지만 많은 임상실험을 통해 곧 일반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약물을 쓰지 않고도 자기의 증상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초기증세 10가지를 발표하여 우리들의 주목을 끈 것이 있다. 미국에 있는 알쯔하이머병협회가 주의해볼 초기증세로 제시한 열가지 증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에 기억이 떨어져 늘 하는 직장에서의 일까지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상적인 일들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낀다. 셋째 언어구사에 문제가 생긴다. 넷째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못한다. 다섯째 판단력이 낮아진다. 여섯째 추상적인 사고력에 문제가 생긴다. 일곱째 물건을 잘못 간수하거나 잃어버린다. 여덟째 기분이나 행동에 여러 변화가 있다. 아홉째 성격이 바뀐다. 열번째 주도권과 독창성이 떨어진다. 스스로 한번 가늠해 볼 일이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이 향 원

* 악(惡)의 장 *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앙을 입는다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 (02)273-1239
대표 이 강 화 합장

단청 · 불상 · 탱화 · 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92호※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 문의처 : 468-8329
■ 호출기 : 012-307-8329
박 석 언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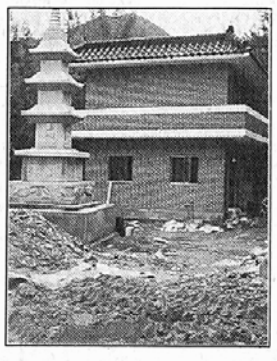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 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 :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 (02)735-6795 · 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 해 창

한남상사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612-5
전화번호 : 02)795-4083
팩스 02)792-9659

천혜의 기도도량
금수산 천진사
단양 팔경의 하나인 구담봉, 옥순봉을 굽어보며 금수산 품에 안긴 천혜의 기도도량 천진사 함께 기도하며 이 국토를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려는 불제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는 도량입니다.
조 용히 머물며 기도 정진하실 스님 (비구니 스님이나 연로하신 스님도 좋습니다)께서는 연락 주십시오
법 당을 관리하면서 기도하실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연락처 단양 천진사 : 0444-423-2085
서울 법천사 : 02-762-2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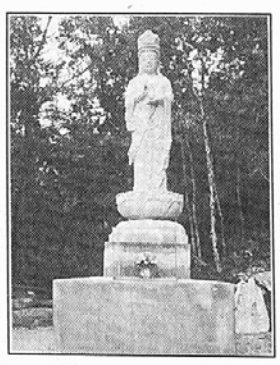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렵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2분도현미 (먹기 어렵다)
3분도현미 (먹기 쉽다)
4분도현미 (먹기 더쉽다)
5분도현미 (먹기 더욱 쉽다)
6분도현미 (먹기 더더욱 쉽다)
백미10분도 (씹는이 전혀 없다)
"입맛대로 주문,배달"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231-5421~2
235-1846~7

정통 중국어 속성강좌
냉·난방, 최고급 시설과 어학실습실 완비
중국 사범대학 교수 초청강의 책임지도
기초반, 회화반, 유학반, 비지니스반
■ 스님 유학반 모집(이미 출국유학중)
■ 학위및 자격취득 책임보장
■ JW 202 유학허가및 입학통지서 보장
■ HSK 시험대비 중점 강의
中國語 : 漢文 : 書法
평일 6:30~22:00(9월 학기 유학생 모집)
특별반 토→14:00~18:00 일→10:00~18:00
정기 학원생 취업보장(수시접수)
상담 : 代 (02) 246-8256, 246-8257
韓中語學院
원장 : 중국 할빈 사범대학교 경제학 교수
중국 학위 심사위원(한국인 최초)
관허 1670호 기업진출상담



인수사찰 증설에 참여하실 분
• 사찰 부지 및 도로 옆 휴게소 가든
건물 55평(현재 성업중)
• 대지 주차장 300평
신축 모텔 부지 1,000평 } 매도가 5억원
-가든 휴게소 건물 2·3층 모델 증축 가능지
-농산물·일용생활품 매점 가능지
연락처 집(조석) 0441-851-3866
사찰(12시) 0441-853-2896
FAX 0441-43-7364
※ 불교신자·독지가 환영

법당 신축 협찬자 구함
-충주댐 강변 진입도로변 별장지
:계명산 사찰 신축 요지
• 석굴암 본존 석가모니 불상 7자 높이, 굴 50평
• 석가 5층탑 22자 높이
• 관세음보살상 15자 높이
• 아미타불 자상고 5자 높이
• 요사채 2층 방 6
〃 1층 방 3 } 35평형
-대지 705평 도로 포장 시설지
• 현 5억 투자 시설된 곳 이후 5억 투자하실 분 구함
• 향후 법당, 대웅전 증축, 요사채 및 산신각 증축 계획
• 기설사찰, 신축지 1,000평 내외 양도 가능
※ 사찰 운영할 보살, 스님, 독지가, 새사찰개발 운영하실 분 환영



인터뷰 석굴암 사랑 30년 김효경 박사



국보 제24호 석굴암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것이 확실해 진 가운데 30년간 석굴암 석굴 내부의 온도와 습도 보고서를 매일 받아보며 점검하고 있는 문화재전문가가 있어 화제다.

30년 전에 맡았던 석굴암 보수공사를 지금까지 챙기고 있는 서울공대 명예교수이며 대한설비공사협회 상임자문인 김효경박사(72).

그가 65년 석굴암과 인연

습도·온도보고서 매일 점검
완벽보존에 '열과 성'

을 맺은 것은 일제가 석굴을 보수하며 콘크리트를 쓰운 뒤부터 생기기 시작한 습기와 이끼를 없애는 일이었다. 김박사는 1년동안 습도와 온도 변화를 조사, 석굴 근처에 외기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토록 하는 기계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 공사 이후 2년여 문화재복구 지도위원으로 위촉돼 기계의 상태를 점검했고, 그로써 그의 임무는 끝났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김박사의 문화재 사랑이다.

김박사는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국보를 손질했는데, 죽을 때까지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불자들의 사찰문화재 사랑을 당부했다. 〈재〉

불조삼경 묘법연화경 집주금강경 등
불교문화재 4건 보물로 지정

문체부는 지난 19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를 보물 제1222호로, 〈집주(集註)금강반야바라밀경下〉를 보물 제1223호로, 〈불조삼경(佛祖三經)〉을 보물 1224호로, 〈묘법연화경 권제7〉을 보물 제1225호로 지정하는등 중요문화재 7점을 보물로 지정했다.

△제1222호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고려시대 지눌이 지은 선수행 저서. 1486년(성종17) 간행 △제1223호 〈집주금강반야바라밀경下〉: 1417년(태종17)에 고승들의 금강경주석 모아 편집 △제1224호 〈불조삼경〉: 인도에서 중국에 가장 먼저 전해진 3경전을 모아 고려우왕 10년(1384년) 간행 △제1225호 〈묘법연화경 권제7〉: 1472년(성종3) 간행된 법화경의 언해본.

보림사석탑등 훼손
전남 문화재 조사결과

지난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국가지정문화재 2백24점과 도지정문화재 4백92점 등 모두 7백16점의 문화재 중 1백71점이 보수나 복원, 보호 방지시설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보 15점중 △국보 44호 장흥 보림사 3층석탑 및 석등 △국보 117호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 △국보 67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과 국보 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보물 158호 보조선사 창성비 등 6건이 보수나 주변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 삼방리 3층석탑
충북지방문화재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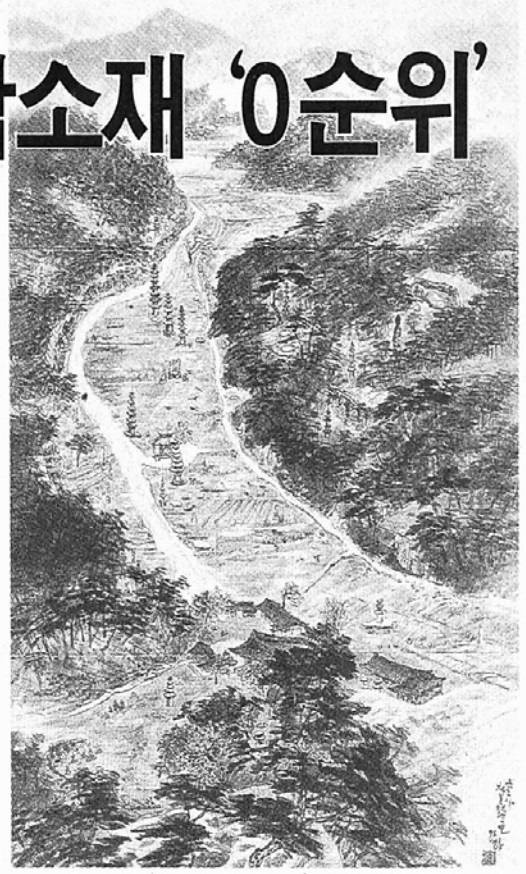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탑동마을 3층석탑이 최근 충북도 지방유형문화재 제182호로 지정됐다.

고려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3.5m의 이 석탑에는 동면에 약사여래, 서면 아미타여래, 남면 대일여래, 북면에 석가여래상이 조성돼 있어 사방불의 의궤를 따르고 있다.

광덕사 석불입상 정비

충북 증평출장소는 최근 도 유형문화재 제75호 광덕사 석불입상의 균열·이탈된 불두(佛頭)를 접착하는 등 보존공사에 착공했다.

운주사 천불천탑골 창작소재 '0순위'



◇이호신씨의 '운주사 천불천탑골'. 영국 대영박물관에 상설 전시될 작품이다.

화가·시인·소설가·사진 작가들
용화세계 완성발원 작품 잇달아

전남 화순의 운주사 천불천탑골이 중요한 창작의 소재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특히 불교를 주제로 한 작업을 하고 있는 미술가와 문학가들이 천불천탑골을 작품의 대상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다. 미완의 천불천탑골. 억눌린 민중들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애틋한 염원을 담고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천불천탑골은 그 자체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을 희구하는 작가들에게 더욱 큰 호감을 주고 있다는게 문화비평가들의 얘기다. 때문에 강연균씨를 비롯 노동식 이호신씨등이 이곳을 소재로 다양한 작품을 그려내고 있다.

광주에서 활동중인 화가 강연균씨는 천불과 천탑을 화폭에 담겠다는 발원을 하고 이미 2백여편의 작품을 완성해 두었다. 강씨는 적절한 기회를 이용 작품을 공개하고 천불천탑이 그림으로 완성되면 대형 전시회도 가질 계획이다. 강씨는 "누워있는 부처님들을 붓으로 일으켜 세워 이 사회의 정토실현을 염원하며 작업한다"고 밝혔다.

이호신씨의 천불천탑골 1.2두 작품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경을 수묵담채로 그린 것으로 영국의 대영박물관이 영구전시키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오는 28일부터 대전 흥인갤러리에서 열리는 '마음-자리매김전'에서도 운주사 불상과 탑을 비구상적으로 표현한 김용씨의 「운주사소견」을 만날 수 있다. 기존의 화가들이 운주사의 불상과 탑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데 비해 김용씨는 비구상적 기법으로 해석하고 있어 흥미롭다.

문학가들에게도 운주사는 중요한 창작의 무대로 사용되고 있다. 황석영씨의 대하소설 〈장길산〉의 후반부에 용화세계를 꿈꾸는 천민들의 꿈의 땅으로 천불천탑골이 등장된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전주 신흥고 교사이며 시인인 진동규씨의 경우 올 연초 천불천탑골을 시극으로 구성한 〈일어서는 돌〉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었다. 이 시극은 백제 난민들이 용화세계에 대한 갈망으로 천개의 탑과 불상을 조성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진동규씨는 "운주사 천불천탑골은 모든 예술인들에게 열려 있는 창작의 교과서"라며 앞으로 문학인들에게도 창작의 욕을 솟게하는 장소로 운주사가 더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작가들도 운주사행 출사를 부지런히 하고 있다. "불상과 탑의 조형미가 독특해 사진작가들에게 매우 호감을 갖게 한다"는 유남해씨는 대원사가 간행한 〈운주사〉에 천불천탑을 상세히 소개했다. 불교계에 잘 알려진 관조스님과 안장헌, 조문호씨 등도 운주사를 자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연태 기자

불심시심 〈25〉

배 고프면 밥 먹다

百千經卷如標指 (백천경권여표지)	백천의 경권 손가락 같아서
因指當觀月在天 (인지당관월재천)	손가락따라 하늘의 달을 보네
月落指忘無一事 (월락지망무일사)	달지고 손가락 잊어 할 일도 없으니
飢來喫飯困來眠 (기래끽반곤래면)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잔다네

윗 시는 서산대사의 제자이기도 했던 소요대사(逍遙太能)의 시이다. 소요대사가 연곡사(燕谷寺)의 향각에서 지은 시이나 제목과는 관계없이 스님으로서의 수행방편을 말한 전형적인 선기적 시이다.

백천으로 헤아릴 수 있는 온갖 경험은 진리로 나아가는 길잡이이며, 그 자체가 진리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가리킴으로 비유되는 지표에 불과한 것이다. 마치 달을 보기 위해서는 달이 있는 곳까지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음과 같다. 손가락은 달까지 시선을 인도하는 길잡이일 뿐이지 손가락이 달이 될 수 없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한다.

그러나 진리를 담고 있는 경전의 말씀까지도 길잡이로 제시된 손가락으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 내용이 진리이고 그 내용처럼 실천하는 수행이 진리의 당체임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마치 달을 인도하는 손가락에 매달려 달의 실체를 못보는 것과 같다. 더구나 진리를 진리 그 자체로만 존재하게 하여 나와는 항시 대상의 경계로만 머무르게 한다면, 달을 보았어도 달과 나와의 연계가 없는 것같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달을 보기 위하여 손가락을 따랐으면 달을 본 뒤의 손끝은 잊었어야 하고 달을 보았으면 달의 실체를 이해하여야 할 일이다. 달의 표면 변화에만 집착하다 보면 달은 또 져버리고 만다. 이 손끝도 달도 없는 상황 이것이 또한 자연의 실상이다. 이것이 삶의 일상사이고 이 삶의 일상사가 바로 진리의 본체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범상함은 항시 반복되기에 진리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배 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이 오는 것처럼 진리의 실상은 일상의 평범함이다. 여기에는 성인이다, 범부다 하는 삶의 질이나 방편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국립중앙박물관 돔 철거 축하
'다시 찾은 빛, 천둥소리' 공연

내달 15일…목정배교수詩 박범훈씨 작곡



◇목정배교수



◇박범훈씨



◇김성녀씨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구조선총독부) 건물 꼭대기의 돔 철거에 앞서 진행될 대형 축하무대 '다시 찾은 빛, 천둥소리'가 광화문앞 광장에서 펼쳐진다.

동국대 목정배교수의 시에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장 박범훈씨가 곡을 붙인 '다시 찾은 빛, 천둥소리'는 웅혼한 민족의 기상과 불교의 자비, 평화정신을 바탕으로 꾸며진다. 약 9분간 진행될 이 공연은 3백명의 합창단과 1백50명의 무용단 80명의 국악관현악단이 동원되는 대형무대.

웅장한 관현악과 합창단이 '아, 천둥소리'를 연주하는 가운데 무용단이 등장해 일제 잔재를 해체하는 뜻을 기리고 나라의 평화와 인류의 자비, 평등을 염원하는 무용을 펼치게 된다.

또 합창 중간의 독창은 불자 국악인 김성녀씨와 테너 신동호교수가 맡게 된다.

작곡을 맡은 박범훈단장은 "이 행사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살린다는 큰 의미와 국민적 화합과 자비·평화의 길을 연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연이 끝나는 순간에 맞춰 국립중앙박물관의 꼭대기 돔형 구조물이 철거한다는 것이 행사 주최측의 계획이다.

'DMZ—한의 소리'로 인간정신 묘사
박찬갑씨, 9월 덴마크 아리우스 축제 참가

'하늘새'를 주제로 자유를 갈구하는 인간의 정서를 표현해 온 조각가 박찬갑씨가 9월1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덴마트 아리우스 국제 페스티발에 한국대표작가로 참여한다.

박씨는 이 페스티발에 「DMZ—한의 소리」라는 작품을 내놓게 된다. 이 작품은 38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종을 하늘에 매달아 땅과 인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소리를 표출한다.

박씨는 "크고 오묘하고 깊이가 있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종과 바람의 소리를 통해 표현함으로 인간성의 회복을 생각케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박찬갑씨

박씨는 지난 21일 오후7시 이천군 덕평의 작업실에서 미리 작품을 공개했다.

덴마크 제2의 도시 아리우스에서 열리는 국제 미술페스티발은 65년부터 세계적인 규모로 열려 온 행사로 올해의 주제는 아시아의 해에 맞춰 '해뜨는 동쪽'으로 정해졌다.

최영문씨 '…사람살이' 개인전
물질풍요·정신빈곤 표현…8월1일까지



◇최영문作 '무상'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이라는 현실적 대립의 문제를 회화와 조형의 결합체로 풀어내온 작가 최영문씨의 작품전이 26일부터 8월1일까지 관훈동 갤러리 터(723-1295)에서 열린다.

「아들에게 남긴 산골, 사람살이」를 주제로 한 최씨의 전시회에는 현대인의 삶의 언저리에 남아 있는 근본적인 고독과 고향회기 본능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특히 최씨는 회화작품 속에 조형적 요소를 결합해 입체적인 주제표출을 시도하고 있어 화단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영문씨는 현재 전북 장수의 장수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제작·발행 : 사찰문화연구원 02-566-4709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책

효심의 본찰
용주사 사지(寺誌) 사찰 문화의 결정이요, 신행의 요람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효심이 불심으로 승화되어 이룩된 용주사.
오늘날까지 '효의 근본사찰'로 인식되고 있음도 정조의 정신이 사찰 곳곳에 스며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문 중 창건 배경의 한 토막)

•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엮은 최초의 사지
• 조선왕조 사찰 창건의 역사가 담긴 사지

*이제는 신도 교육과 포교도 '사지 발간' 등을 통해 한단계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변형판(18절)/248쪽/전면컬러(사진 168매 수록)/ 값 10,000원

효를 통해 본 불교의 인간관
'효의 세상 정토의 세상'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 효, 한국 불교에 살아 숨쉬는 고승들과 재가 불자들의 효행, 효 윤리의 현대적 의의를 평이한 문체로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 불교의 인간관을 수록
• 왜 부처님은 출가후에도 효를 했는가?
• 불효자는 성불할 수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
• 출가후 고승들의 효행
• 불교에서 말하는 부모의 은혜를 말함

*부록으로 용주사 소장 부모은중경 목판본을 영인하여 실었습니다.

신국판/240쪽/전면컬러(사진 39매 수록)/ 값 7,000원

전통사찰총서
사찰 속에 깃든 한민족 문화의 뿌리 찾기
방대한 자료와 철저한 고증에 의한 정통 사지

전 통사찰총서 1, 2 · 강원도 Ⅰ, Ⅱ
강릉시 · 속초시 의 16개 시군의 유물 · 유적 총람 / 월정사 · 신흥사 외 55개 전통사찰 및 절터의 창건 설화, 문화재, 대표적 수행자, 성보의 불교 문화사적, 신앙적 의미 해설 / 문화부지정, 강원도 소재 전통 사찰 목록 / 탑 · 부도 석비 · 불교 건축물의 부분 명칭
강원도 Ⅰ ➡ 268쪽/신국판(사진 262매 수록) / 책값 : 7,500원
강원도 Ⅱ ➡ 252쪽/신국판(사진 267매 수록) / 책값 : 7,500원

전 통사찰총서 3 · 경기도 Ⅰ
안양시 외 9개 시군의 문화적 특성 개관 / 용주사 외 45사찰 · 절터의 모든 것 / 불교문화재 목록 / 절터 목록 / 불교 금석문
362쪽/신국판(사진 217매 수록) / 책값 : 10,000원



전 통사찰총서 4 · 서울
서울의 역사 · 문화 개관 / 각 구의 문화적 특성 / 54개 전통 사찰의 모든 것을 구별로 나누어 정리 / 서울 소재 불교문화재 목록 /서울 전통 사찰 주소록
472쪽/신국판(사진 297매 수록)/책값 10,000원

전 통사찰총서 5 · 경기도 Ⅱ
인천시 · 남양주 시 외 14개 시 · 군의 불교문화 소개 봉선사 외 55개 사찰 및 절터의 사찰문화 총람 8월말 발간 예정입니다.

불교 문화
남·북한 민족 동질성의 공통분모
분단 이후 최초로 시도된 '북한사찰연구'

Ⅰ. 총설
북한의 승려 · 신도 단체, 북한의 종교 정책을 통해본 '북한 불교의 현재'
Ⅱ. 북한의 현존 사찰
북한의 현존 사찰로 알려진 60여 개 사찰의 역사적 고찰

北韓寺刹研究

Ⅲ. 북한의 주요 사찰
한국 불교사에 큰 자취를 남긴 12개 사찰의 역사적 인물, 귀중한 문화재의 모든 것
Ⅳ. 북한의 불교 문화재
북한에서 지정한 58점의 불교 문화재의 종교적, 예술적 의미
Ⅴ. 북한의 사찰 재산
분단 이전 사찰 소유의 재산 현황(과거 31본산의 북한 지역 내 사찰 재산 목록 : 289개 사찰, 82,000정보)
Ⅵ. 북한의 사암 목록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북한 지역에 존재했던 1,793개 사찰과 문헌 정리(위치 · 창건 · 주요인물 · 문화재 : 도표화)
680쪽/4×6배판(사진 206매 수록)/값 30,000원

공급 : 불교서적 전문 책 방 여시아문 02-737-0695

교학 연구·후학양성 평생바친 거목

19일 입적한 홍정식박사의 학문과 인생

법화·천태학 발전 기여…下心 몸소실천 '귀감'

우리나라 현대 불교학의 태두 미산(米山) 홍정식(洪庭植) 박사가 지난 19일 오전9시 향년 79세로 입적했다.

홍정식박사는 1917년 충남 공주군 계룡면에서 태어나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나온 뒤 중앙불교전문학교에 들어가면서(1940년) 불교와 인연을 맺은 이래 55년간 불교학 연구와 후학양성에 몸바쳐 온 대학자(大學者). 1961년부터 83년까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 하면서 천태학(天台學)을 비롯한 대승불교사상을 강의했다.

특히 홍박사는 불교학을 학문으로서만 연구하지 않고 실천자로서의 태도를 견지해 많은 사람들을 감화 시키기도 했다.

깨끗한 한복에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한 말씨로 강단을 지키던 홍박사는 '불교적 인격'의 한 표상이기도 했다는게 후학들의 회고다. 정년퇴임 이후에도 책 읽고 글 쓰는 일을 쉬지 않았던 홍박사는 "입적 직 전 까지도 쾌창한 기분이었으며 아침 식사도 많이 하셨다"고 가족들이 전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두었다면 장님이 되도록 수행을 했던 아니룻다처럼 온몸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 홍박사의 지론이었다. 실제로 홍박사는 자신의 지론처럼 불교학 연구라는 한길에 일생을 바침으로 우리시대의 불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중앙불교전문학교를 나온 홍박사는 불교중앙교무원에서 한때 일을 하다가 보문중, 강경상업학교, 조양보육사범학교, 보문고 교사, 경기대교수, 도서관장 등을 두루 거친후 61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취임했다. 특히 홍박사는 1973년 한국불교학회를 창립 초대 회장을 맡으며 우리나라 불교학 발전의 터전을 일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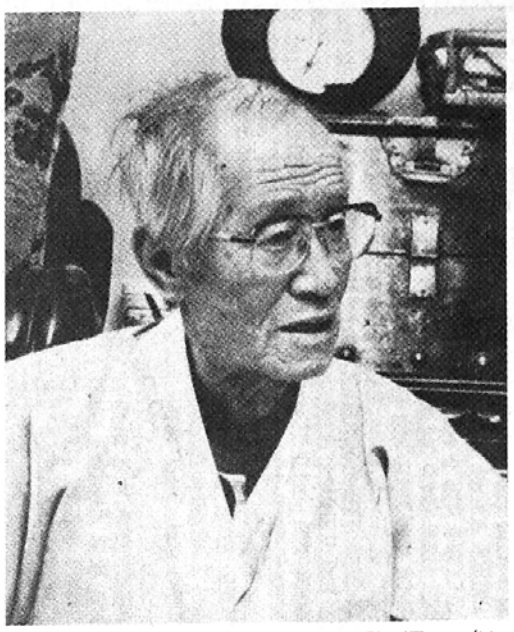
미산 홍정식박사는 1974년 동국대학에서 '법화불교학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후에 밝힌 법화학 입문동기는 오늘의 불교계에 큰 교훈을 남기고 있다. 즉, "비구·대처 분규가 일어 나면서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분규를 이념적으로 통합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법화경〉을 읽고 눈이 번쩍 열렸다"는 것이 홍박사의 회고였다.

홍박사는 법화경의 중심사상인 '회삼귀일(會三歸一·성문·연각·보살승이 일불(一佛)로 돌아 간다는 뜻)'에 오늘의 불교가 귀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 했었다. 이밖에도 홍박사는 한문불경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범어·팔리어·서장어(西藏語)문헌에 의한 불교연구가 지속돼야 하며 인접 학문과의 연계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준한 인품이 노학(老鶴)에 비유됐던 홍박사는 생활 속의 청정심(淸淨心)과 하심(下心)을 몸소 실행하며 불교학자로서의 기품을 보여 온 당대의 석학으로 불교사에 기록될 것이다.

▲주요논저 = 〈불교입문〉〈국역묘법연화경〉(번역)〈보살의 가는 길〉(번역)〈불교의 국가·정치사상연구〉(공저)〈법화불교연구〉〈역해 반야심경〉〈역해 금강경〉〈역해 유마경〉〈역해 선어록〉〈성문승 수기작불의 의의〉〈태국사회의 불교적 배경〉(보고서)〈법화경 결집자 자위적 고심〉〈불교의 정치사상〉〈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대승보살의 이상〉〈고려천태종 개립과 의천〉〈불교윤리의 본질〉〈금강경·유마경·선어록〉(단행본)〈법화경 초역·법화경요해〉〈법화불교의 연구〉〈역주 금강경〉〈대자대비 관세음보살〉(공저) 등 다수.

임연태 기자



◇지난 19일 입적한 故 홍정식박사는 고준한 인품으로 '불교적 인격'의 표상이됐으며 후학양성과 법화·천태학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btn, 경전이야기 영상제작

드라마 '유마경' 내년 초파일 방영

천수경·금강경 인도등 해외로케



◇이희도씨



◇윤아씨



◇김길호씨

경전소설 〈유마경〉과 경전해설서 〈천수경 이야기〉〈금강경 이야기〉 등이 영상화 된다.

불교텔레비전 영상사업부는 정찬주씨의 경전구도소설 〈유마경〉을 지난 21일부터 드라마로 본격 제작하고 있다. 오태형극본 이원덕연출의 '유마경'은 민준역에 중견탤런트 이희도, 이옥역에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의 윤아, 지행거사역에는 연극배우 김길호씨가 캐스팅돼 열연중.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홍천군일대에서 촬영하게될 '유마경'은 내년 1월까지 상·하편으로 제작을 완료하여 내년 부처님 오신날에 특집방영과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찬주씨의 〈소설유마경〉은 보살의 자비를 주제로한 대승경전 〈유마경〉을 현대적 기법으로 소설화한 작품으로 〈유마경〉 사상의 핵심인 자비, 불이, 순수한 마음을 드라마로 형상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강사인 민준이 도회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자살을 기도,마침 지나가던 만해스님의 유발제자였던 지행거사에게 구출되어 지행거사의 생활속에서 유마적 삶을 본 민준은 만해일대기를 불후의 명작으로 집필하려하나 욕망의 찌꺼기임을 깨닫고 도회지로 되돌아 온다는 것이 대략적인 줄거리.

'천수경이야기'와 '금강경이야기'는 올해안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다.

김호성씨 원작의 '천수경이야기'와 법륜스님이 지은 '금강경이야기'는 MBC 인간시대 작가 이종환씨가 시나리오 집필에 들어갔으며 이달말에 각각 탈고할 계획이다.

내달초부터 촬영하게 될 '천수경이야기'는 인도, 네팔, 티벳 로케로 상·하편을 동시에 제작한다. 또 '금강경이야기'도 내달 중순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영상사업부는 "경전의 영상화는 첫시도인 만큼 경전의 내용이 올바르게 전달돼야 한다는 대전제 속에서 영상제작에 따른 확실한 고증과 기술적인 완벽성 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상파 광고 자율화

공보처, 방송 5개년계획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부응하여 지상파방송 광고제도가 단계적으로 자율화될 전망이다.

공보처는 지난 14일 방송전반에 걸친 앞으로의 정책지표를 제시하는 '선진방송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지상파방송은 가용주파수 범위에서 지역FM방송을 허용하고 교육방송 지역국을 5개 광역시에 허가하며 95년 하반기부터 1시간30분, 96년 상반기에는 오전 2시간이 늘어 97년 1월부터 종일 방송체제를 확립한다는 점차적인 계획이다. 케이블텔레비전은 '선 케이블텔레비전육성 후 위성케이블 연계발전'안을 택했다고 전제하고 시청인구의 조기확산을 위해 10만가구 구역분할을 50만가구 이내로 확대하고 미허가 지역에 대한 추가허가시 우선적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며 국민부담을 덜 수 있도록 채널수에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을 96년에 도입키로 했다.

불자가수 김광석 콘서트

불교방송 '밤의 창가에서' 진행자 가수 김광석씨가 내달 1일부터 한달간 동숭동 대학로 학전극장에서 콘서트를 연다.

유치원교사 연수회

진각종, 생활교육 주제로

진각종 중앙교육원(원장 도흔)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총인원에서 전국 유치(아)원 교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기 교사연수회를 실시했다.

'전인적인 생활교육'을 주제로 실시된 이번 연수교육은 교법강좌, 교양강좌(유아 음악·미술 지도법, 과학 지도) 등을 비롯 교사들의 자체연수 (율동발표회, 교재교구 만들기, 지도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교육원장 도흔정사는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종교교육을 통한 유아의 인성교육을 확고히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며 "이번 연수회를 계기로 현장에서 유아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각청년회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아름다운 삶, 숨쉬는 역사'를 주제로 경주지역 일원에서 하기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대회는 불적답사, 위덕대학 현장방문, 전국청년회 창립22주년 기념법회 등 다채로운 내용의 법회와 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달 1일 하계수련회

총지종, 온양 수련원서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안효강)은 8월 1일부터 2일까지 충남 온양 충무수련원에서 어린이 하계수련법회를 개최한다.

한편 종립동해중학교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충북 수련원에서 교사수련법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태고종 종무직원 연수교육 실시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스님)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총무원 설법전에서 종무직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총무원과 종무직원간의 원활한 종무행정과 유대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회에서 박서봉 총무원장은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불사가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종무직원의 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수기간동안 종헌종법, 종무행정방침, 종조론, 태고종사, 종교정책등의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목탁소리

경쟁시대의 포교방송

김 원 우 〈취재2부 기자〉

정부가 지난 14일 '선진방송 5개년 계획'를 발표함에따라 방송의 무한경쟁시대가 현실로 다가섰다.

아울러 포교매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btn과 BBS는 방송구조의 재점검, 경쟁력강화 등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방송업계의 개혁요구를 최대한 수용했다고 하는 '선진방송 5개년 계획'은 불교계 방송매체에 경제적인 타격을 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이다.

따라서 교계및 방송가의 안팎에서는 btn과 BBS의 자구책 모색과 관련한 염려의 시선이 없지 않다. 공중파방송의 장점이였던 코바코의 광고평균화정책이 종합방송사의 요구대로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키로 함에 따라 종교방송에 광고를 꺼려하는 기업주들로 인해 BBS의 광고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 2차주식공모를 저조한 실적으로 마감한 btn은 앞으로의 운영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btn과 BBS는 상업적 목적의 방송사가 아닌 불교포교방송이다. 21세기 뉴미디어시대 불교계의 방송매체를 담보 할 수 있는 매체포교의 총아인 것이다.이런 설립취지에서는 경쟁관계를 이겨나가기위한 상업방송화라는 대안을 채택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교계의 포괄적인 참여와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정립시키는 다각적인 발전방향 모색만이 경쟁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또 btn과 BBS는 방송이라는 구조속에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질로 승부해야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방송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꾸준한 홍보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부대중이 하나되는 내외적인 노력이 수반될 때 btn과 BBS는 경쟁적 방송시장의 도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먹구름에서 벗어나 불자들의 신행을 이끄는 방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 하이라이트

btn ch32

생활속 불교사상 집중조명

TV 신행상담 (27일 11:10~12:00) 소홀하기 쉬운 불교의 기본교리를 심도있게 다뤄본다. 또 생활속의 불교사상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명.

박광서교수 21C불교 강의

btn특강 (28일 12:30~13:20) 서강대 물리학과 박광서 교수를 초청하여 '21세기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문화전환기의 불교의 새로운 역할과 함께 한국의 정치, 사회적 역할, 불자의 자세를 강의.

불자기업인 박민선씨 초대

나의 삶 나의 불교 (29일 11:10~12:00) 귀뚜라미보일러 박민선회장. 세운상가의 작은 난로가게에서 출발하여 보기드문 보일러기업으로 만든 독실한 불자기업인이다.

케인의 도움 바라는 소년

만행승 케인 (30일 21:00~21:50) 산길을 가던 케인은 나쉬보라라는 인디언소년을 만난다. 나쉬보는 케인이 수호신이라 믿고 계속 도와달라고 간청을 한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정지호교수 '불교와 수학' 강의

오늘을 이끄는 불교 (28일 11:05~11:20) 동국대 수학과 정지호 교수가 '불교와 수학'을 주제로 강의한다.

휴가지에서의 환경보호

환경패트롤 (29일 14:10~15:00) 휴가철을 맞아 재점검하는 '환경적인 휴가를 보내자' 두번째 시간.

옥야경의 '일곱가지 아내'

교리강좌 (30일 11:05~12:00) '일곱가지 아내'에 대해 옥야경의 이야기를 공부해 본다.

Q채널 ch25

리틀부다 제작과정 담아

리틀부타를 만들기까지 (30일 21:00~22:00) 베르톨루치 감독의 영화 리틀부다를 제작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 달라이라마를 만났을때의 충격과 서구 영화인들이 티벳불교의 정신세계에 빠져드는 모습을 담고있다.

출판·편집 안내

인생은 짧고 기록은 영원합니다. 도서출판 사람들은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는 물론 보통사람들의 자서전·회고록·개인기록 등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자서전 ◎ 회고록 ◎ 출판대행
◎ 유고집 ◎ 향토지 ◎ 편집대행

※ 인생 경험과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불자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 혹은 방문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기획·제작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사람들 ☎ (02)725-6752~4

부처님의 사상과 말씀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경전

법구경의 세계



이원섭풀이
신국판 / 398쪽 / 7,000원

법구경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만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다. 그 속에는 광활한 불법의 세계와 불교사상의 전반이 담겨져 있다.

불교학자이자 시인인 저자가 어려운 용어나 문구에 대한 설명을 비롯, 각각의 게송에 맞는 경전 속의 적절한 비유와 예화,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여러가지 경험을 들어 설명하고 있어 법구경의 진수를 읽으면서 체득할 수 있게 해 준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02) 720 - 9372 · 3 FAX (02) 723 - 0546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전화 0416-856-3280	

"참회눈물로 얼룩진 세상 씻자"

19일 조계사서 삼풍희생자 합동위령재…28일간 특별기도

하늘도 슬퍼하는 양 장마비가 거세게 내리는 가운데 삼풍참사로 희생된 영령 4백36명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합동위령재 및 시국법회가 지난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조계사를 비롯 전국 사찰에서는 삼풍사건을 기화로 우리 모두 참회하자는 참회기도가 입재 봉행됐다.

삼풍사건 유가족 1백50여명과 각 종단대표, 조순 서울시장 서석재 총무처장관 김도현 문체부장관 등 정·관계 인사와 신도 등 1천여명이 참석한 위령재에서 월주총무원장은 법어를 통해 "삼풍백화점의 붕괴원인은 생명존엄의 가치보다는 영리추구만을 최고로 하는 천민자본주의 가치관과 빨리빨리병,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부른 인재이자 관재"라 진단하고 "정부는 시설과 건축물에 대하여는 철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부실 건축물이나 시설은 철거조치 또는 적절한 보수작업을 단행해 다시는 이러한 인재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되풀이 되지 않는 세상 만들기 운동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조순시장은 조사를 통해 "이번 참사는 인성을 잃어버린 데서 기인한 황금만능주의가 빚어낸 업보"라 지적하고 "앞으로 인간애를 통해 사리사욕을 버리고 시민의 복지를 이루어 내기 위해 솔선수범과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유가족 대표인 김창석·이상택씨 월주 총무원장 조순 시장 서석재 장관 김도현 문체부차관 황명수 동국대 총동창회장 등의 순으로 헌향 및 헌화가 이어졌으며 혜창스님(조계종 호법부장)에 의해 발원문이 낭독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는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한 일은 혼자서 책임진다 △우리는 인격을 좀먹는 천민 소비문화에 물들지 않는다 등 6개항의 사회 안녕을 위한 불자의 다짐과 행동지침을 함께 낭독했다. 1부 식이 끝난 후에는 화암스님(포교원 연수국장) 집전으로 천도 3재 제사가 봉행됐다.

한편 전국 사찰들과 불자들은 삼풍사건으로 희생된 영가들을 천도하고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하며 다시는 이러한 무고한 참사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위해 8월16일까지 28일간을 특별참회 기간으로 정하고 매일 사시 불공때 전국민적 자각과 반성의 참회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이경숙 기자〉



새생명 얻은 부처님 아들 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생환한 세 젊은이 최명석·박승현·유지환양이 활짝 웃고있다. 부처님의 아들 딸인 세 젊은이의 생환은 각종 매체를 통해 연일 전 세계에 알려져 '최고의 불교포교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승가대 '소쩍새마을' 복지법인화

추진위 구성 내달말까지 설립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스님)이 '소쩍새 마을'을 승가대 부설로 사회복지법인화 할 예정이다. 〈본지 37호 14면 참조〉

승가대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8월말까지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따른 서류작업을 이달말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승가대는 학장 송산스님, 소쩍새 마을 엄마스님 법신스님, 기획실장 금정스님 등 12인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설립 추진위를 구성, 소쩍새마을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도선사 종합복지관 개관

단위사찰 처음…재활치료실·경로식당등 운영

서울 도선사(주지 동광)가 단위사찰로는 처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 지난 20일 오후3시 개관식을 가졌다.

도선사가 시흥에 설립한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교계 최초의 사찰 직영체로 8백70평의 대지에 연건평 3백9평의 지상2층 규모이다. 상담실, 강당, 어린이공부방, 도서실, 경로식당, 재활치료실, 컴퓨터교실 등의 시설을 갖춘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노인복지와 가정·재활시설·어린이집등 70여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개관식에서 도선사 주지 동광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점점 각박해지고 복잡화되어가는 현대에 사찰이 복지사업에 솔선수범하는 것은 불국토 실현의 첫 발이 될 것"이라며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문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범어사앞 아파트 건립 백만인 반대 서명운동

경동아파트 건립저지 범어사 실무대책위와 제117회 임시중앙종회 대책특위는 지난 13일 오후2시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공사 재개에 들어간 경동건설을 상대로 이의 저지를 위한 강력대응을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언론매체활용 △초법적 방안 △중앙정부에 재검토 건의 △허가과정의 명백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백만인서명운동 등 여섯가지 방안으로 범어사와 총무원이 합심해 건립반대에 나설 것으로 결의했다.



◇도선사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전경.

해인골프장 허가취소 정부 결정

가야개발 공사 강행 움직임…마찰 예상

문체부가 가야산 해인골프장 사업계획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사업자인 (주)가야개발측이 공사 강행 움직임을 보여 불교계는 물론 주민·환경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5일 문체부 행정심판위가 취소결정을 내린데 이어 15일 주돈식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함으로써 사업계획취소의 행정절차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가야개발측은 "취소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이나 투자된 자금의 보상을 위한 손해전보소송 제기와 함께 사업추진을 강행할 뜻을 비추고 있다.

준비위원장 법조스님

'21세기 佛聯' 9월 창립

(가칭)21세기 불교연합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지난 14일 동화사무실(견지동 110-40 청송빌딩 202호)에서 열려 준비위원장에 법조스님(고운사 주지)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 홍보 등 각 분야 준비위 실무위원장과 간사들을 선임하고 9월초 창립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들은 정관 및 회의명칭과 향후 구체적인 준비작업의 내용과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를 31일 오후3시 재차 갖기로 합의했다.

진흥원 20주년 기념행사 준비

'20년史' 발간·문화강좌·수련원 회향등 일정확정

대한불교 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갖는다.

진흥원 이사회는 지난 19일 63빌딩 스카이-뷰 룸에서 이사회를 갖고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일정을 확정했다.

진흥원 20주년 기념행사로는 장경호거사 추모법회를 9월3일 10시 다원정사 대법당에서 봉행하고, 13일에는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한민족의 현주소' '인류학적측면의 한민족 고찰' 등의 특집 다보문화강좌를 마련한다. 또 9월 14일 18시에 가든호텔 연회장에서 20주년 기념출판물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진흥원 20년사'를 발간, 출판기념회 및 축하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구본회 감사를 새로 선임하고 과산 다보수련원을 차질없이 준공하여 96년 4월1일 회향식을 갖기로 했으며 완공과 동시에 양주에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키로 했다.

이전기금 모금등 논의 중앙승가대 운영위서

중앙승가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 월주스님)는 지난 14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총 기부금 12억 4천여만원의 모금현황의 보고와 함께 연극순회공연, 그림전시회 등을 통한 재 모금계획을 통과시켰다. 또 학과 증설의 건에 대해서는 승가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분야로 전문위원들의 세심한 검토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의례절차 재조명을"

통일법요집 편찬 세미나

포교원 주최 통일법요집 편찬준비 제4차 세미나에서 '불교의 통과의례·명절의례'를 주제로 발표한 진철승씨(불교문화교육연구소)는 "통과의례는 포교일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현대대중의 일상흐름에 맞는 의례절차의 조명이 필요하다"면서 "역사적 차원과 범위에서 불교의례를 재조명하고 평생의례속에서 불교의례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기초단체장 불자 68명

지난 6·27 지방자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당선자 2백45명중 불자는 68명으로 전체의 27.7%로 나타났다.

기독교인은 76명(31.2%) 카톨릭은 28명(11%) 유교1명(0.4%)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9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이 발표한 「'95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당선자 종교현황 및 불자당선자 명단·프로필」에서 밝혀진 것으로 서울은 총 26명중 2명(기독교 12명) 부산은 17명중 8명(기독교 3, 카톨릭 2) 인천은 11명중 1명(기독교 6, 카톨릭 3) 등으로 드러났다.

기획실이 밝힌 불자 광역 및 기초단체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광역단체장: 조순(서울시) 문정수(부산시) 홍선기(대전시) 주병덕(충북) 최각규(강원) 허경만(전남)

▲기초단체장: 이배영(서울 은평구) 조건호(옹진군) 이노성(구리시) 윤병희(용인군) 김종철(보은군) 변종석(청원군) 정상헌(음성군) 박병호(대전동구) 윤형상(태안군) 김기홍(서산시) 김학현(보령시) 권오창(예산군) 이정규(남원시) 강수원(부안군) 김상두(장수군) 정채호(여천시) 권이담(목포시) 김광현(여수시) 문경규(담양군) 이동승(구례군) 김흥식(장성군) 이재용(대구남구) 김규택(대구 수성구) 양희영(달성군) 김진영(영주시) 정재균(영천시) 김근수(상주시) 최희욱(경산시) 홍순홍(군위군) 정해걸(의성군) 권용환(영양군) 김우연(영덕군) 이진환(고령군) 권상국(예천군) 엄태항(봉화군) 전광순(울진군) 김상순(청도군) 배응기(부산강서구) 서석인(부산해운대구) 권익(부산북구) 윤석천(부산금정구) 오규석(부산기장구) 신종관(부산수영구) 박재영(부산사하구) 김병로(진해시) 이상조(밀양시) 전원용(의령군) 조성회(함안군) 김진백(창녕군) 강석정(합천군) 정주환(거창군) 오광협(서귀포시) 신철주(북제주군) 강태훈(남제주군) 동문성(속초시) 김기열(원주시) 심기섭(강릉시) 홍순일(태백시) 김민기(동해시) 김원창(정선군) 이영구(고성군).

부산시장 초청 간담회

부산 광역시 불교연합회(회장 정관스님)는 지난 22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초청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찬간담회는 부산시장과 교계 대덕스님, 지도자들의 첫 만남으로 범어사앞 고층아파트 공사 재개건 등 부산 불교계의 현안 등이 논의됐다.

'공소권 없음' 비난성명

실천승가회(공동의장 청화·지선스님)와 전불련(상임의장 지선), 대불청(회장 이상번)은 5·18고소·고발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해 19일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피의자들을 즉각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세 단체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정부의 역사에 대한 무책임성과 개혁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하고 "관련 피의자들의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운전자회 탱화 봉안

광주불교운전자회(회장 김경수)는 지난 18일 삼정사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장탱화 봉안식을 거행했다.

이날 봉안식에서 김경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꾸준히 보살행을 실천해온 회원들께 감사한다"며 "지역포교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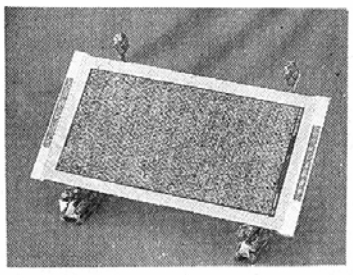
8·15 행사 계획 발표

'8·15 광복50주년 민족공동행사 부산준비위원회'는 지난 18일 오전 부산역 철도그릴에서 '7천만 겨레 통일선언운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행사계획 등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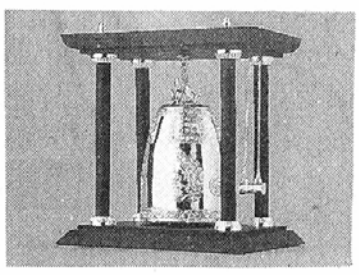
8·15행사 계획에 따르면 8월15일 광복절 정오에 10분동안 남북단일기, 손수건 등을 흔들고 자동차 경적과 사찰에서 통일의 종을 울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불기 2539년 불교미술 공예품 특별기획전 행사특가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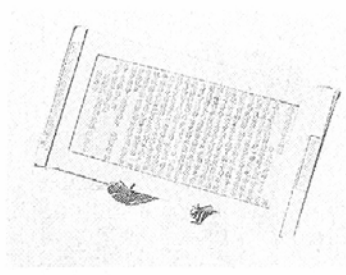
구입문의 기획제작 三田佛事 (02) 732-6095 732-6096 • 클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수신자부담)



선착순 48점 • 비경 전돌금강경 경판
부처님 천 분을 양각하여 모시고 가운데 금강경을 입체사경한 비경
• 종전가 : ₩ 398,000 • 재질 : 주석 99%(순금개금) • 규격 : 505×255×8(m/m)
• 행사특가 : ₩ 3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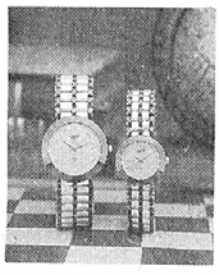


선착순 118점 • 황금 에밀레종
• 종전가 : ₩ 139,000 • 국보 제29호 • 재질 : 순청동, 순금개금 • 규격 235×185×270(m/m)
• 행사특가 : ₩ 98,000



선착순 108점 • 금동반야심경
• 종전가 : ₩ 128,000 • 국보 제32호(고려판대장경) • 재질 : 순동 24K 개금 • 규격 가로 260× 세로 99(m/m)
• 행사특가 : ₩ 68,000

품질 / 디자인 / 품위는 60만원대 예물시계 가격은 10만원대
천연보석 지로코늅 예물시계 — 콤비



PHOENIX (주)피닉스 시계
18K금용두
• 원석사파이어그라스 • IPG순금이온도금 • 3기압완전방수 • 안조콤비레선밴드
• 시중가 : ₩ 338,000 • 행사특가 : ₩ 128,000

운명의 길을 열어주는
보살기(氣)띠부적 메달
부적 천지인의 인연을 만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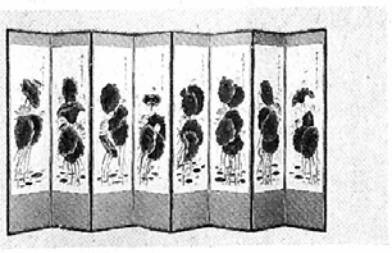
띠부적이란?
인간은 누구나 12간지에 따라 12년을 하나의 주기로 운명의 변모를 합니다.
12년마다 되돌아오는 자신의 운명지수의 변동을 인연보살 천지인의 氣로써 천운의 길로 돌려 놓는 불가사의한 부적입니다.
각 띠별로 자신의 궤도를 미리 알아 매사를 성사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 띠부적메달견본
• 앞면 (보살상) • 뒷면 (띠별12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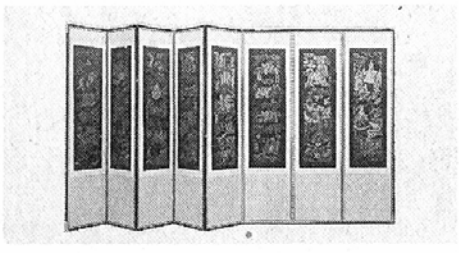


■ 순은 (99.9%) 18.75g ■ 가격 ₩ 48,000(세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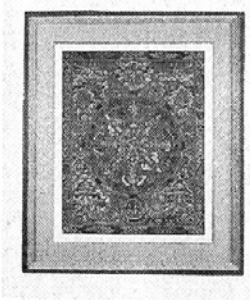
(子)쥐띠(만월보살) 甲子生, 丙子生, 戊子生, 庚子生, 壬子生	(午)말띠(여의륜보살) 庚午生, 壬午生, 甲午生, 丙午生, 戊午生
(丑)소띠(천수보살) 乙丑生, 丁丑生, 己丑生, 辛丑生, 癸丑生	(未)양띠(대세지보살) 辛未生, 癸未生, 乙未生, 丁未生, 己未生
(寅)범띠(대륜보살) 丙寅生, 戊寅生, 庚寅生, 壬寅生, 甲寅生	(申)원숭이띠(십일면보살) 壬申生, 甲申生, 丙申生, 戊申生, 庚申生
(卯)토끼띠(수월보살) 丁卯生, 己卯生, 辛卯生, 癸卯生, 乙卯生	(酉)닭띠(군다리보살) 癸酉生, 乙酉生, 丁酉生, 己酉生, 辛酉生
(辰)용띠(관세음보살) 戊辰生, 庚辰生, 壬辰生, 甲辰生, 丙辰生	(戌)개띠(정취보살) 甲戌生, 丙戌生, 戊戌生, 庚戌生, 壬戌生
(巳)뱀띠(관자재보살) 己巳生, 辛巳生, 癸巳生, 乙巳生, 丁巳生	(亥)돼지띠(아이타불) 乙亥生, 丁亥生, 己亥生, 辛亥生, 癸亥生



선착순 18점 • 林泉 거사 물성 연화도 병풍
진품 • 후면 : 반야심경(금정산인정관) • 높이 : 5자 5치(약 167cm) • 폭 : 12자(약 364cm) • 재질 : 고급스기목, 스모사 비단
• 종전가 : ₩ 548,000 • 행사특가 : ₩ 380,000



선착순 20점 • 석가세존 부처님 일대기 병풍
장엄하신 세존부처님의 일대기를 금화로 조성한 살아있는 병풍입니다.
• 8폭 • ■ 높이 : 5자 5치(약 167cm) ■ 폭 : 12자(약 364cm)
• 종전가 : ₩ 328,000 • 행사특가 : ₩ 298,000



진품 만다라
티베트 스님께서 지성과 공덕으로 탄생시킨 불가사의한 영성의 법력도
선착순 32점 • ■ 규격 : 580×480(m/m) ■ 재질 : 스기목, 입체표구(완제품)
• 종전가 : ₩ 509,000 • 행사특가 : ₩ 420,000

3백77시간 어둠에 생명의 빛 쏟아지던 날

"착한 딸 되겠어요" 부처님께 약속

'기적의 생환' 주인공 박승현 양

지난 6월 20일 사고 당일날 아침. 박승현양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분주하게 출근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난밤 백화점에 함께 근무하는 친구 정맏이와 보았던 비디오 이야기, 이런저런이야기로 재잘대며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백화점으로 출근을 했다.

에어콘 고장으로 유난히 더웠던 그날 오후 6시경 "우르르" 피할 사이도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 정신을 차려 눈을 떴을때 콘크리트 더미에 승현양은 혼자 갇혀 있었다. 캄캄했다. 목이 말랐다. 하지만 마실 물이 없었다. 무서웠다.

어둠속 떠오른 엄마얼굴

"엄마...!" 사고가 나던날 아침 3천원만 달라던 승현양에게 그것 가지고 뭘하겠냐며 주머니에서 1만원을 넣어주시던 엄마(고순영보살)의 따뜻한 쌈지돈이 아롱지며 기억속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어둠속에서 엄마의 얼굴이 유독 또렷이 떠올랐다. "살려주세요" 공허한 메아리만이 콘크리트더미사이를 왔다갔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천둥번개소리에 잠을 깼다. 너무나 무서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청했다. 꼭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살려주세요. 살아나기만 한다면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하는 착한 딸이 될께요 '라며 마음속으로 부처님과 약속을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파아팡! 꽝' 기계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웅성, 웅성..."구조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늘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3백77시간의 절망감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어왔고 어느새 승현양의 몸은 병원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있었다.

> 할머니와 엄마 아빠는 딸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매일 매일 관세음보살께 지성으로 기도를 올렸다



◇ "모든이에게 환희의 기쁨을 준 인연공덕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리"는 광우스님의 축원속에 승현양은 스님 및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합장을 올렸다. 〈사진=박재완 기자〉

공포·절망속 그리운 가족얼굴 떠올라

"이 사과 받아라" 스님 꿈 꾸고 바로 구조

제3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환호와 경이로움속에 16일 일요일 아침 승현양은 눈을 떴다.

병실밖에는 북적대는 취재진과 기뻐서 우는 친지와 친구들, 그리고 승현양과 함께 일했던 동료가족들이 찾아와 한줄의 희망이라도 건지려는 듯 애타게 실종된 딸의 안부를 묻느라 엄마 고순영보살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 북새통이었다. 고보살은 딸이 살아 돌아온 기쁨도 잠시 묻어둔채 실종자가족들의 애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물러앉여 있었다.

막내동생 승호(천호중 1)도 그 사람들 틈에서 아침부터 내내 누나 승현양을 기다렸다. "누나! 텔레비젼 보고 나 울었어. 빨리 보고 싶었는데 못봐서 정말 화났었어."라며 승호가 누나에게 주려고 가져온 과자 봉지를 내밀었을때 너무나 갑동한 나머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승호야, 누나도 승호가 보고 싶었어" 딸이 살아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매일매일 관세음보살께 지성으로 기도를 올렸던 엄마 고영순보살과 아빠 박재원거사도 곁에서 남매의 우애에 눈시울을 붉혔다. 승현양의 할머니 차영본보살은 "할미이, 우리 할미이!" 하고 애교를 떨던 승현양을 다시 못 만날까봐 마음 졸였다며 승현양의 손을 꼬옥 잡고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귀여운 우리 손녀딸"

"부처님이 살려 주셨구나"

스님이 사과를 주는 꿈을 꿨다는 소리를 들자마자 '아! 부처님이 살려주셨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는 승현양의 아버지는 살아돌아온 딸이 대견스러워 내내 눈을 떼지 않았다.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승현양은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다. 구조 당일날 저녁에는 금용사 월공스님이 찾아와 승현양을 위로했다. 지난 16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사현스님, 덕신스님 등이 방문, 쾌유를 비는 호신불시계와 백팔염주, 불서를 선물하자 승현양은 "부처님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겠다"고 말하기도.

이어 지난 18일에는 전국 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을 비롯 정덕스님, 법성스님, 영안스님, 정성스님, 성우스님, 혜조스님이 중환자실로 승현양을 찾아왔다.

"어둠속에서 극한의 어려움을 견뎌내 모든이에게 환희의 기쁨을 준 그 인연공덕이 커서 승현양은 꼭 훌륭한 사람이 될거다"라고 광우스님이 축원해 주셨고 승현양은 "감사합니다"하고 답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다졌다.

옆에서 지켜보던 승현양의 엄마 고순영보살도 "부처님의 딸이니 다시돌아왔죠 뭐"라고 하면서 다함께 두손을 모으고 부처님전에 다시한번 감사기도를 올렸다.

이은자 기자

인터뷰

"승현이 위해 매일 금강경 기도"

승현네 절 금용사 주지 월공스님

"믿어지지 않는 수승한 그 법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지난 15일 매몰 3백77시간만에 구조된 박승현양이 다니는 금용사 주지 월공스님은 승현양의 생환을 이렇게 말했다.



사고나기 1달 전인 지난 6월6일 승현이가 가족과 함께 금용사를 찾아와 백화점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을때 "그일도 제대로 못해내면 앞으로 무슨일을 제대로 해내겠느냐고 야단을 치고 계속 다니라고 했는데 사고를 당해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스님은 그간의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승현이는 월달전부터 식당일을 그만둔 부모를 위해 생활비로 월급을 통째로 내놓던 요즘 신세대 답지않은 효녀였어요. 그래서 꼭 살 수 있을거라 확신했습니다" 월공스님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승현이의 생환을 위해 금강경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며 승현이의 생환을 확신했고 사고발생 15일을 넘기며 체념해가던 승현이가 주에게 "3일안에 승현이가 꼭 살아나올것"이라 말하며 용기를 주었다고.

"15일 아침기도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승현이가 구조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기뻤다"는 스님은 "온가족이 돈독한 신심으로 부처님께 의지해 승현이의 생환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기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6년 가을 법주사서 출가했다는 월공스님은 "마음자세를 바로잡는 일이야 말로 이 사회를 바로잡는 일이다"라면서 두번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HANIYASUTTA (다니야경)

♦ 'I have boiled my rice, I have milked my cows' -so said the herdsman Dhaniya,- 'I am living together with my fellows near the banks of the Mahi river, my house is covered, the fire is kindled: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나는 밥도 지어 놓았고 소젖도 짜 놓았습니다. 목동 다니야가 말했다. 나는 마히강둑 가까이에서 처자와 살고있습니다. 집의 이엉은 엮었고 불도 지펴 놓았으니 좋다면 비를 내리소서, 오 하늘이여.

♦ 'I am free from anger, free from stubbornness' -so said Bhagavat- 'I am abiding for one night near the banks of the Mahi river, my house is uncovered, the fire of passion is extinguished: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나는 성냄에서도, 고집에서도 해방되었다. 스승(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마히강둑 가까이에서 하룻밤을 묵고 있으며 이엉은 잇지 않았고 욕정의 불은 꺼졌다. 그러니 좋다면 비를 내리라, 오, 하늘이여!

♦ 'Gad-flies are not to be found with me' - so said the herdsman Dhaniya,- 'in meadows abounding with grass the cows are roaming, and they can endure rain when it comes: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④

쇠파리도 없고, 풀이 무성한 초원에서 소들은 노닐고 그들은 비가 와도 참을 수 있으니, 좋으시다면 비를 내리소서, 오 하늘이여!

♦ 'By me is made a well constructed raft,' -so said Bhagavat,- 'I have passed over to Nibbana, I have reached the further bank, having overcome the torrent of passions; there is no further use for a raft: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나는 튼튼한 뗏목을 만들어, 스승(부처님)이 말씀하셨다.열반으로 건너갔다. 나는 욕정의 급류를 이겨내고 피안에 이르러 이제 뗏목이 필요없으니, 좋다면 비를 내리라, 오 하늘이여!

♦ 'My wife is obedient, not wanton,' - so said the herdsman Dhaniya,- 'for a long time she has been living together with me, she is winning, and I hear nothing wicked of her: therefore, if thou like, rain, O sky!'

내 아내는 순종적이고 부정한 여인도 아닙니다, 목동 다니야가 말했다. 아내는 오랫동안 나와 함께 살았는데 매력있고 그녀에 대한 나쁜 소문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좋으시다면 비를 내리소서, 오 하늘이여!

한명우 기자

◇ '주부신행담' ·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입니다.

"패션 자동차 시트카바"

ALT-X
AUTO DRESSING SHOP



① 이데아 ⑥ 아우토반
② 아네모네 ⑦ 미스터킹
③ 론 ⑧ 아로스
④ 타셋 ⑨ 루미너스
⑤ 트리플 ⑩ 시그넘

인천연수점 (032)812-9553

■ 체인점 모집
• 모집조건
평수 20평이상 소유하고 개선분 기타 - 주유소 대형카인테리어, 백화점 등 문의 받습니다.
• 체인사업부
TEL (032)812-9304~6
담당자 차장 이병우

■ ALT-X체인점
인천연수점 (032)812-9553
서울강남점 (02)556-4468
서울북부점 (02)9923640
서울구로점 (02)808-3441
의정부점 (0351)872-2192
안양점 (0343)53-9263 4
수원점 (0331)38-8280 1
대구서부점 (053)654-6204
대전서구점 (042)633-7071
전주점 (0652)74-0072
광주북구점 (062)524-4255
제주점 (064)58-2660 1

■ 사원모집
• 모집분야
1. 카피라이터
2.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3. 컨설 디자이너
(각항 2년제 졸업이상자)
• 홍보부
TEL (032)816-7053
담당자 부장 장영장

Aquam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8-7 67블럭 8호도
TEL (032)818-9821~4 FAX (032)818-9845